

애덤 스미스 입문

애덤 스미스 입문

에이먼 버틀러 지음 · 황수연 옮김

도서출판 리버티

애덤 스미스 입문

지은이 에이먼 버틀러
옮긴이 황수연
펴낸이 구자춘

초판 1쇄 펴낸날 2018년 12월 31일

도서출판 리버티
48075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2, 103-404
전화 (051) 701-0122 / 팩스 (051) 918-0177
출판등록 2013년 1월 10일 제333-2013-000001호
전자우편 jachoon2@hanmail.net

Liberty Publishing House
182 Yangwoon-ro, 103-404, Haeundae-gu, Busan 48075, Republic of Korea
Phone 82 51 701 0122
email jachoon2@hanmail.net

© 도서출판 리버티 2018

Adam Smith: A Primer by Eamonn Butler
First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London in 2007
Copyright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07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18 by Liberty Publishing House
Translated by Sooyoun Hwang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Westminster,
London, UK.
Reprint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은 저작권자인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계약한
도서출판 리버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8766-15-3 (03300)

차례

• 지은이에 대해	9
• 앨런 피콕의 서문	10
• 감사의 글	13
• 요약	14
• 개빈 케네디의 서론	17
1 애덤 스미스가 중요한 이유	29
경제학의 옛날 견해	29
자유로운 교환의 생산성	30
자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질서	32
윤리의 심리학	33
자기 이익과 미덕	34
인간 본성과 인간 사회	35
2 스미스의 생애와 경력	36
커콜디와 글래스고	36
옥스퍼드와 유인	37
초기 강의 경력	39

여행	40
《국부론》	41
관세청장	42
3 《국부론》	44
책의 광범위한 주제	44
생산과 교환	47
자본의 축적	64
경제 제도의 역사	70
경제 이론과 정책	71
정부의 역할	78
오늘날의 《국부론》	88
4 《도덕 감정론》	90
책의 주요 주제	90
덕의 기초로서의 타고난 공감	92
보상, 처벌 그리고 사회	95
기초로서의 정의	97
자기비판과 양심	99
도덕 규칙	100
부에 대한 태도	102
자기 개선	103
덕에 관하여	104

유덕한 사회의 헌법	106
5 스미스의 강의와 기타 저작	108
통일적인 주제	109
스미스의 과학 철학	110
의사 전달의 심리학	113
스미스의 정부와 공공 정책	116
결론	122
6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여담	123
부자들은 빈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123
국내 및 외국 산업	124
인간 행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126
자기 영속적인 체제	127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결과들	129
7 애덤 스미스의 몇몇 유명한 인용문들	131
8 가려낸 참고 문헌	143
 논평: 오늘날 애덤 스미스의 적절성	147
크레이그 스미스	

IEA에 대해	154
---------------	-----

• 옮긴이 후기	156
----------------	-----

• 옮긴이에 대해	159
-----------------	-----

지은이에 대해

에이먼 버틀러(Eamonn Butler) 박사는 필수 서비스의 전달에 선택과 경쟁을 촉진할 정책들을 고안해 온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의 소장이다. 그는 경제학, 철학 그리고 심리학 학위들을 가지고 있으며, 1978년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대 동안 그는 또한 워싱턴 DC에서 미 하원을 위해 연금과 복지 문제에 관해 연구하기도 했다.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영국 보험 중개인(British Insurance Broker)》의 편집인으로 근무했고, 그 후 자기가 창설을 도운 애덤 스미스 연구소에 전념하였다. 버틀러 박사는 지능과 IQ 검사에 관한 많은 책들의 공저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수많은 책들과 논문들의 저자이기도 하다.

서문

바로 얼마 전 에든버러 대학교에 상업 경제와 상사법(商事法) 교수(Professor of Commercial Economy and Mercantile Law)(후에 경제 과학 교수(Professor of Economic Science)로 단축되었다!)로 임명된 나는 1958년에, 애덤 스미스에 관해 몇 마디 친절한 말을 포함하고 있는 J. K. 갤브레이스(J. K. Galbraith)의 《풍요한 사회(The Affluent Society)》가 출판된 직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초청되었다. 케니스 갤브레이스는 그 당시 수요가 많았고, 한 하버드 친구는 점심 먹으면서 내가 그를 만나도록 주선하는데 자기가 작은 ‘쿠데타(coup)’를 달성했다고 믿었다. 자기 손님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그[갤브레이스]는 말했다, ‘앨런,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경제학 교수직의 보유자가 되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난감했고, 그래서 에든버러의 그 교수직은 경제학자가 경기 순환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백히 믿고서 원래 1870년에 에든버러 상인 회사(Merchant Company of Edinburgh)에 의해 설립되었고 재정이 지원되었다고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KG[케니스 갤브레이스]는 말했다, ‘당신은 애덤 스미스가 보유하고 있었던 교수직을 보유하고 있음에 틀림없지요.’ ‘미안해요,’ 나는 대답했다, ‘대학이 틀렸고, 과목이 틀렸고, 세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애덤 스미스는 글래스고에서 논리학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덕 철학 교수였다.) 우리의 점심은 전혀 성공작이 아니었다.

나는 KG의 무지를 폭로시킨 데 대해 일말의 후회에 시달리는데, 왜냐하면, 결국, 애덤 스미스는 비록 그가 에든버러에서 결코 대학교수직을 보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든버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그가 묻혀 있고, 애덤 스미스 연구소의 훌륭한 노력 덕분에 그리고 참으로 대개, 스미스의 사고에 대한 이 빛나는 소개의 저자인, 에이먼 버틀러 덕분에, 그를 기념하여 스코틀랜드에서 세워지는 첫 번째 동상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곧 볼 것이다. 더욱이, 스미스에 대한 지식, 찬양 그리고, 스코틀랜드인으로서, 거의 소유 이권을 공언한 많은 다른 사람들 같이, 나는 나의 관심을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스미스에게, 자기의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 TMS)》이 도덕에 관한 자기의 관념의 초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들의 일상의 상호 거래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는 물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한 자기들의 인식에 대한 견해들에 관한 자기의 분석의 초석도 형성한다는 점을, 나는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

비록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도, 케네디 교수의 권위적인 소개에 의해 보강되는 버틀러 박사의 입문서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 철학과 그의 경제 분석을 조화시키는 ‘애덤 스미스 문제(Adam Smith problem)’가 실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이것은 그가 ‘자본주의(capitalism)’(이 말은 스미스의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다)와 부당 이득 행위(profitteering)에 대한 부르주아 변명꾼이었다는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미신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 텍스트의 비범한 특성들 중 하나를, TMS에서 피력된 인간 행동의 도덕적 기초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들의 해석에 주어지는 세심한 주의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스미스가 주로 사회 심리학자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버틀러 박사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공한다.

버틀러 박사가 스미스의 생애와 시대에 관해 알려져 있는 것을 능숙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설명에서 전문가들도 역시 맛보아야 할 독창적인 비결을 가지고 있기도 한 모노그래프를 썼다는 충분한 징후를 나는 보였다. 그것으로 나의 즐거운 과제는 완료되는데, 왜냐하면 나는 독자가 그 작품을 내가 즐겼던 만큼 많이 즐기는 것을 저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헤리엇-와트 대학교(Heriot-Watt University)

에든버러 경영 대학

재정학 명예 교수

앨런 피콕(Alan Peacock)

이 모노그래프에 표현된 견해들은, 모든 IEA 출판물들에서 그렇듯이, 필자의 견해들이지, (법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본 연구소의 견해들이 아니며, 그 관리 이사들이나 대학 자문 위원들이나 중견 직원들의 견해들도 아니다.

감사의 글

나는 매드센 피리(Madsen Pirie) 박사와 개빈 케네디(Gavin Kennedy) 교수에게 텍스트에 대한 그들의 논평에 대해, 그리고 리스 데이비스(Lis Davis)에게 인용문들에 대한 그녀의 도움에 대해, 감사한다.

요약

- 한 국가의 부는, 중상주의자들이 믿었듯이, 자기의 금고 안에 있는 금과 은의 양이 아니라, 자기의 생산과 상업의 총량—오늘날 우리가 국내 총 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이라 부르곤 하는 것—이다.
- 자유로운 교환에서는 양쪽 모두 상태가 더 나아진다. 만약 자기가 교환으로부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 아무도 교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수입품도 우리에게 소중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할 필요가 없다. 참으로, 만약 우리의 고객들이 부유하면 우리가 얻을 것이 더 많다.
- 상업에 대한 규제들은 근거가 없고 반생산적이다. 번영은 세금, 수입 관세, 수출 보조금 그리고 국내 산업에 대한 특혜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
-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은 분업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자본 축적에 달려 있다. 막대한 산출량 증가는 생산을, 각각이 전문가 손에 의해 착수되는, 많은 작은 작업들로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생산자들에게 투자를 위한 잉여를 남긴다.

- 한 나라의 미래 소득은 자본 축적률에 달려 있다. 더 나은 생산 과정에 투자되는 것이 더 많을수록, 미래에 더 많은 부가 창출될 것이다.
-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이 있을 때, 시장 체제는 자동적으로 가장 긴급한 필요에 계속 집중되어 있다. 물건들이 희소한 곳에서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들을 공급하는 데 더 많은 이윤이 있고, 그래서 생산자들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다.
- 자유로운 교환이 있고 강제가 없는 개방적 경쟁 시장이 있을 때, 번영은 아주 빠르게 증가한다. 이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는 방위, 사법 그리고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자유와 자기 이익은 혼란에 이르지 않고—마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리듯—질서와 조화를 낳는다.
- 기득 이해관계자들은 자기들 자신에게 이롭게 시장 체제를 왜곡시키는 데 정부 권력을 사용한다. 고용주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람들에게 특정 직업들을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진입 장벽과 같이, 경쟁을 억누르는 규제들의 통과에 노력할지 모른다.
- 세금들은 소득에 비례해야 하고 확실해야 하며 납부하기 편리해야 한다. 그것들은 수금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되고, 사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탈세를 조장할 만큼 그렇게 부담되어서는 안 되고, 세리(稅吏)들의 빈번한 방문들을 필요로 해서 안 된다.
-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타고난 ‘동정(sympathy)’(혹은 공감

(empathy))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온건하게 하고 조화를 보존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행동에 관한 도덕적 판단의 기초와 인간 미덕의 원천이기도 하다. 인간성은 광신자들과 몽상가들의 거들먹거리는 이성보다 조화로운 사회의 창설에 더 나은 안내자가 된다.

서론

개빈 케네디¹

에이먼 버틀러는 애덤 스미스, 그 사람과 그의 사고에 대한 감탄할 만하고 권위 있는 입문서를 썼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기로 인쇄된 것 중 그에 대한 최상의 짧은 입문서인데, 그것 덕분에 누구든 스미스가 진실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에이먼 버틀러는, 수년에 걸쳐 많이 쓰였던, 애덤 스미스의 정치 경제학에 관한 논쟁들을 잘 피한다. 스미스, 그 인물과 그의 책들의 기술은 18세기 후반까지의 영국 사회의 진화에 관한 그의 독특한 종합의 정확한 평가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의 본질과 원인의 탐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년 전에 자기의 덜 알려진 책,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출간했다. 그것들 사이의 간격으로부터 스미스가 인간 행동의 동기 부여자로서 자비의 도덕적 가치를 도덕과 관계가 없는 자기 이익으로 대체했다고 주장된다. 1762-3년 익명의 학생들이 필기한

¹ 개빈 케네디(Gavin Kennedy)는 헤리엇 와트 대학교(Heriot-Watt University)의 명예 교수이자, 2005년 팰그레이브 맥밀런(Palgrave Macmillan)에 의해 출판된 《애덤 스미스의 잃어버린 유산(Adam Smith's Lost Legacy)》의 저자이다.

노트들로부터, 스미스의 강의들의 상당한 부분들이 1776년의 《국부론》에 거의 말대로 다시 나타났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윤리에 관한 자기 강의들(1751-64년)을 《도덕 감정론》(1759)으로 출간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인간 동기에 관해 모순적인 견해들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스미스는 도덕 철학자였다. 18세기에 경제학은 그것이 19세기 후기에 되었던 별개의 학문 분야가 아직 아니었다. 참으로, 경제학 주제들에 관한 팸플릿들의, 더 이른 그리고 당대의, 저자들이 많이 있었고(예일 대학교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것들 수천 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들의 저자들 중 약간은 경제학에 공헌했지만, 어느 것도 애덤 스미스에 의해 시도된 규모에서, 그리고 종류의, 종합적인 탐구를 산출하지 않았다.

스미스 이전에는, 정치 경제학은 대외 전쟁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권자와 국가를 금 및 은괴로 부유하게 하는 데 집중했다. 《국부론》은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annual product of land and labor)’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학의 중점을 바꾸었다. 그것은 교과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의 본질과 부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논한다.

제I부와 제II부는, 교환의 경향, 분업, 생산 요소, 시장의 활력, 그리고 참가자들 사이 수입의 분배와 같은, 인간 사회의 독특한 특징들을 개진한다. 제III부는 18세기 영국을, 원시적인 ‘수렵(hunting)’에서, ‘양치기(shepherding)’와 ‘농업(farming)’을 거쳐, 상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사회적 진화의 맥락 안에 넣고, 서유럽에

서 5세기에 로마의 멸망이 어떻게 이 ‘자연적인(natural)’ 진행을 중단시켰는지 보여준다.

유럽이 15세기 후에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유럽은 스미스가 ‘중상주의 상업(mercantile commerce)’이라고 부른 것에 봉사하는 정책들의 부담 아래에서 그렇게 했는데, 국가의 부가 금 및 은괴의 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리고 한 나라가 그것이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 균형이 중요하다는, 그것의 주된 잘못에 대해 제IV부는 중상주의 상업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더욱 나쁘게, 중상주의 상업은 국내 경제가 보호적 독점을 가지고, 노동의 고용과 이동성을 제한하고, 자연적인 시장 자유들에 대해 간섭함으로써 더 강해진다고 믿었다.

이런 잘못에 대한 스미스의 개선책들은 시장들의 자유로운 작동을 변경하는 간섭들로부터 시장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는 시장에서 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이 ‘토지, 노동 혹은 자본(land, labour or capital)’을 다른 사람들과 결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적인 경제 성장률이 시작되게 허용하도록 경쟁적으로 생산된 산출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했다. 지주에게 지대, 노동자에게 임금 그리고 상인과 제조업자에게 이윤을 지불한 후에, 자본의 소유자들은 자기들의 순 이윤을 추가적인 생산 활동에 재투자할 것이고, 연속적인 회(回)들의 생산과 교환을 통해, 사회의 토지와 노동의 연간 산출액으로부터 실질 부를 창출할 것인데, 이것은 ‘거대한 순환 바퀴(great wheel of circulation)’의 연속적인 순환들을 통하여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

할 것이다.

제V부에서, 스미스는 정부들의 적합한 역할들을 역점을 두어 다루었고, 그것들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개진했는데, 이것들은 방위, 사법, 상업을 촉진하는 공공사업들과 제도들, ‘모든 연령의 국민들(people of all ages)’의 교육, ‘역겹고 불쾌한 질병(loathsome and offensive diseases)’에 대비하는 조치들, ‘주권자의 위엄(dignity of the sovereign)’의 유지, 그리고 과세와 (공공 채무보다는) 수혜자에 대한 요금을 통한 이러한 경비들의 재원 조달이다.

《국부론》은 그의 시대에 독특하게 해로웠던 중상주의 ‘정치 경제학 원리들(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을, 로마의 멸망으로부터의 유럽의 회복에서와 종이 천 년이나 되는 군사 지도자들과 봉건주의로부터의 국민 국가들의 탈출에서 그것들이 진화했던 대로, 역점을 두어 다루었다. 지난 200년은 저자들이 2세기의 추가적인 공부와 연구의 이점을 가지고 스미스의 책들을 판단하는 많은 예들을 제공하는데, 그 책들은 그 공부와 연구에 놀랄 정도로 잘 견딘다.

서유럽의 사람들의 과반수는 절망적으로 가난하였고 그들의 절대 빈곤과 종교상 박해는 20세기 초기 몇 십 년까지 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랄라시아(Australasia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서남태평양 제도를 포함하는 지역)로의 이주의 주요 동인(動因)이 되었다. 스미스는 빈곤의 사실들을 넘어 그것의 원인까지, 즉 부 창출의 결여까지 보았다. 구제는 오직 사회들 안에서, 부를 창출하는 조건들의 창설에 의해서만 생긴다. 그가 인간 연구에

대한 자기의 역사적 접근법을 돌린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였다. 스미스의 원전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철저히 정통해 있었던 고전 그리스와 라틴 원전들로부터의 예들과 인용들이 산재되어 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모든 주요 인물들과 같이, 그는 뒤로 사회의 기원들을 보았지 앞으로 유토피아 견해들을 보지 않았다. 그러한 낭만주의는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에 번창했다.

유럽의 문명은 군사 지도자 만행과 봉건주의에 빠졌지만, 또한 (그의 작품 전체에 걸쳐 흔한 구절인)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slowly and gradually) 농업 생산이 회복되었고, 인구가 증가했으며, 산재한 가축 시장들과 시장들에서 상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1760년 이전 백 년 동안 가정용품들의 범위는, 심지어 보통 노동자들의 가장 가난한 가정들에서도, 북아메리카 수렵 종족들과 그들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princes)’의 풍요보다 더 우월한 (그것의 많은 부분이 중고 취득물에 기인하지만) 어느 정도의 비교 ‘풍요(opulence)’를 보여주었다. 커칼디(Kirkcaldy) 여기저기에 있는 인근 작은 못 및 핀 공장들과 대장간들에 대한 자기의 관찰들과 결합된, 여행자들의 보고서들로부터, 스미스는 실질 부의 창출을, 금 및 은괴의 형태에서가 아니라, 그 당시 근로 인구의 가정들에서 가시적이게 되었던, 비록 조잡하긴 하지만, 사회의 토지와 노동의 산출물의 생산과 분배에서 보았는데, 후자는 한 나라의 상대적 풍요의 진정한 척도였다.

그의 최초의 통찰력은 분업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았고—그 ‘명예(honour)’는 플라톤과, ‘근대(modern)’ 시대에는, 윌리엄 페티

(William Petty) 경에 돌아갔다—실질적 풍요가 그저 인구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구의 대다수 사이에 퍼질 수 있을, 그리고 그들 모두를 몇 세대 안에 계속해서 더 풍요하게 할 수 있을, 수단으로서 분업의 의의를 인식하는 데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되었다. 만약 분업이 열쇠라면, 무슨 조건들이 산출량을 증가시킬까? 각자의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장애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했는가? 서술에서 분석으로의 자기의 도약에서, 그는 새로운 경제 과학의 기초들을 향한 첫 걸음을 떼었다.

나는 완전한 자유에서 작동하는 상업 경제에 관한 그의 모형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요약하는데, 이것은 뒤따르는 에이먼 버틀러의 탁월한 진술에 대해 보완적이다.

상업 사회는 분업의, 시장성 높은, 제품들의 교환을 발전시킨다. 재화끼리의 직접적이지만 비효율적인 물물 교환(barter)은 화폐를 사용하는 더 효율적인 간접 교환의 출현보다 오랫동안 우선했다. 수천 년 전 고대 문명들에서 주조 화폐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업으로부터 상업이 일찍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왜 화폐 주조를 필요로 할까?).

가장 이른 교환들은 시골의 제품들(식량과 원료)과 작은 읍들의 제품들(원시적인 제조 도구들과 자질구레한 장신구들) 사이에 이루어졌다. 교환되는 재화들의 시장 가격은 공급과 유효 수요(effectual demand)에 의해 결정되고, 스미스가 ‘자연 가격(natural prices)’이라고 불렀던 것과 다를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생산에 협

동하는, 생산 요소들(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의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 지방 자연 이윤율을 포함하는 그들의 비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완전 균형 주위를 영원히 진동하지만 결코 거기에 정착하지 않는 시장 가격들은 자기들의 비용들을 벌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장 가격들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이용 가능한 제품들에 대해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지불하도록 그리고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공급하도록 신호하여, 시간이 지나면 실제 공급이 불가피하게 이 신호들에 적응한다. 이것들은 경쟁 경제의 역학을 구성한다.

노동은 생산적이거나 비생산적인데, 그 차이는 노동이, 고정 자본과 결합되었을 때, 시장에서 팔려서 사업의 이윤을 포함하는 자기 비용을 버는 재화를 생산하는지에 달려 있다. 자기 비용을 벌도록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비생산적인 노동(예를 들면, 부잣집의 정찬에 시중드는 하인들)의 제품들은 수입에서의 소비다. 그러나 생산적인 노동의 제품들은 자기들의 비용을 벌고 순 수입(이윤)을 재 생산하는데, 이것은 소비를 위해서나(낭비) 순 투자를 위해서(검약) 사용될지 모른다. 국가는 자체 내에 일정 기간에 걸쳐 낭비적인 소비자들의 비율에 비교하여 더 높은 검약적인 생산자들의 비율을 가짐으로써 더 부유해진다. 자기의 연간 순 투자율로부터, 경제는 고용을 증가(시키고 노동의 임금을 올리며 가장 덜 부유한 태반의 사람들 사이에 풍요를 확산)시키는데, 이것은 ‘생활의 필수품, 편의 시설 그리고 오락물(necessaries, conveniences and amusements of life)’의 연간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불행하게도, 로마의 멸망은 이 자연적인 과정을 중단시켰는데,

경제가 천 년 후에 회복되고 농업 기술에서의 개선과 과학에서의 르네상스로부터 새로운 기술적 잠재력을 이용하게 될 때까지는, 사회들은 경제의 자연적 진화를 방해하도록 작용한 거짓된 중상주의 사상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한, 종교적 독단들을 포함한, 정치적 제도들을 발현시켰다.

법령들이 자유 무역에 거슬러 관세, 조세 그리고 금지를 시행하고 읍 길드들과 수공업 독점들이 시장들에의 경쟁적인 자유 진입과 탈퇴로부터의 편익을 줄여 완전한 자유가 손상되었다. 그것들은 또한 노동자가 오랜 도제 기간을 다 마치지 않은 직업들에서 일할 노동자의 자연권을 금지하기도 했고, 개인들이 특정 지역들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들을 팔거나 사지 못하게도 하였으며, 무역 균형이라는 중상주의 신기루를 추구하여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해 관세, 관세 환급 그리고 보조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걱정되는 사실은 애덤 스미스가 우려했던 양의 순 투자율 유지에 대한 많은 금지들이 21세기에 우리와 함께 남아 있어서 중상주의 성격의 입법부들과 포폴리즘 거짓말들에 의해 비슷하게 조장된다는 점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는, 선진 국가들에서의 절대 빈곤은 더 이상 그것이 스미스의 시대에 문제였던 문제가 아니어서, 세계의 발전 도상 및 비발전 국가들에서의 절대 및 상대 빈곤이 모든 경제학자들의 가슴을 움직일 것인데, 회고하면 최초의 경제학자였던 애덤 스미스의 가슴과 마음을 그것이 움직였던 것과 같다.

거의 모든 소위 우회로들(diversions)과 자세한 해설들이 《국부

론》을 현대 독자들에게 ‘어렵(difficult)’고 ‘부적절하(irrelevant)’
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오해에서 생
긴다. 그는 현대 스타일의 ‘경제 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교
과서 저자가 아니었다—그 과목은 스미스가 살아 있었을 때 존재하
지 않았다. 그는 국부의 진정한 의미, 부가 증가하고 사회가 풍요를
향해 진전했던 원인, 그리고 그것을 저지했던 것에 대한 자기의 탐
구의 보고서를 썼다. 그의 것은 적절한 때에 나타났던 올바른 책이
었다. 그것은 그의 소질이자 그의 유산이었다. 그리고 에이먼 버틀
러의 진술은 왜 그런지 당신이 알 최상의 기회이다.

애덤 스미스 입문

1 애덤 스미스가 중요한 이유

애덤 스미스(1723-90년)는 지금까지 쓰인 가장 영향력 있는 책들 중 하나인 《국부의 본질과 원인의 탐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1776)의 저자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다. 스미스는 경제생활의 원리들에 관한 우리의 사고를, 인간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에 기초하여, 고대의 형태에서 뚜렷하게 근대적인 형태로 변형시켰다.

경제학의 옛날 견해

참으로, 스미스가 우리의 생각들을 대단히 바꾸었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 지배하고 있었던 경제 체제를 심지어 서술하는 것조차도 어렵다. 중상주의(mercantilism)라고 불러, 그것은 국부를 한 나라의 금 및 은 저장(貯量 · stock)으로 측정했다. 해외에서 재화들을 수입하는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들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이 부라고 생각되는 것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재화들을 수출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왜냐하면 이 귀중한 금속들이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무역은 오직 판매자에게만 이익을 주었지, 구매자에게는 이익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한 국가는 오직 다른 국가들이 더 가난해질 때에만 더 부유해질 수 있었다.

이 견해에 기초하여, 국가의 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대한 통제 체제—수입품에 대한 조세, 수출업자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가 세워졌다. 심지어 영국 자신의 아메리카 식민지들도 이 체제에서는 불리하게 되어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참으로, 모든 상업에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보호주의의 문화가 국내 경제에도 침투하였다. 도시들은 다른 읍들로부터의 장인들이 자기들의 장사를 열심히 하기 위하여 이사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제조업자들과 상인들은 왕에게 보호적 독점을 달라고 청원하였다. 신(新)발명의 양말 짜는 기계와 같은 노동 절약 장치들은 기존 생산자들에 대한 위협으로서 금지되었다.

자유로운 교환의 생산성

스미스는 이 거대한 중상주의 체계가 실수에 기반을 두고 있고 비생산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유로운 교환에서는 양쪽 모두 더 나아진다고 주장했다. 아주 간단하게, 만약 자기가 교환으로부터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 아무도 교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구매자는 이익을 얻는데, 판매자가 이익을 얻는 것과 꼭 같다. 우리의 수출품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수입품은 우리에게 소중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참으로, 만약 우리의 고객들이 부유하다면 우리는 얻을 것이 더 많다.¹

자유로운 교환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본질적인 진실이 주어진 때, 스미스는 농업이나 제조업이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거래와 교환이 우리의 번영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한 국가의 부는 그것의 금고에 있는 금과 은의 양이 아니라 그것의 생산과 상업의 총량—오늘날 우리가 국내 총 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이라고 부르곤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발한 생각이었지만, 매우 강력한 생각이었다. 그것은 16세기 이래 유럽 국가들 주변에 세워졌던 무역 장벽들을 관통하여 커다란 지적 구멍을 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인 결과들도 가져왔다. 직접적, 자극적, 도전적인 문체, 냉소적인 기지(機智) 그리고 다수의 예들을 가진 《국부론》은 실제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웠고, 그들은 그것의 아이디어들을 행동으로 바꿀 것이다.

그 책은 너무 늦게 나와서 아메리카 식민지들과의 전쟁을 저지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자유 무역과 조세 간소화에 대한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수상의 옹호와 농업 시장들을 자유화하는 로버트 필(Robert Peel) 경의 차후의 조치들의 토대를 놓았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것은 위대한 19세기 자유 무역과 경제 확대 시대의 기초였을 것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자유 무역의 상식은, 그것을 달성하는 실제적 난점이 무엇이건, 전 세계에 걸쳐 받아들여지고 있다.

1 《국부론》, 권 IV, 제3장, 제2부, p. 493, 문단 c9. (각주에 있는 페이지 숫자는 《애덤 스미스의 저작과 편지의 글래스고판(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을 가리킨다. 가려낸 참고 문헌을 보라.)

자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질서

스미스는 그러한 영향력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및 상업적 자유에 대한 이러한 신뢰 증대는 직접적으로는 인간 사회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에 관한 그의 근본적이고 신선한 이해에서 생겼다. 그는 인간들이 서로 함께 살고 일하는 방법들을 발견하려고 애쓰며 따라 사회적 조화가 자연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깨달았다. 자유와 자기 이익은 혼란에 이를 필요가 없고—마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리는 것처럼—질서와 조화를 낳을 것이다.

그것들은 또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자원 사용도 야기할 것이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오로지 자기들 자신의 조건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만—다른 사람들과 거래함에 따라, 국가의 토지, 자본, 기능, 지식, 시간, 기업심 그리고 창의성은 사람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목적과 목표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돌려질 것이다.

따라서 번영하는 사회적 질서의 유지는 왕과 대신들의 지속적인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산물로서 유기적으로 자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잘 자라고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자유로운 교환이 있고 강제가 없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이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 규칙들을 필요로 했는데, 불을 담는 데 불 바구니(fire-basket)가 필요한 것과 꼭 같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들, 정의와 도덕의 규칙들은, 중상주의 당국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개입들과 아주 다르게, 일반적(general)이고 비개인적(impersonal)이다.

그러므로 《국부론》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바로서의 경제학(economics)의 연구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심리학에 관한, 즉 인생, 복지, 정치 제도, 법 그리고 도덕에 관한, 획기적인 논저이다.

윤리의 심리학

스미스는 교육받은 지식인이—과학, 예술, 문학, 철학, 고전 그리고 윤리학에 관해—모든 것을 아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알았다. 그는 거대한 장서를 축적했고 법과 정부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중세의) 자유 7과목(liberal arts ·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수, 기하, 천문, 음악으로 구성)의 역사도 계획했다. 그리고 처음 그를 유명하게 한 것은 《국부론》이 아니었고, 윤리에 관한 책,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이었다. 그것은 오늘날 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은 《국부론》과 꼭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있었고 그것의 저자에게 꼭 마찬가지로 중요했다.

《도덕 감정론》은 우리가 도덕적 판단들을 형성하는 기초를 식별하려고 한다. 다시 한 번, 스미스는 그것을 깊은 인간 심리의 문제로 본다.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타고난 ‘동정(sympathy)’(오늘날 우리는 ‘공감(empathy)’이라고 말하곤 한다)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온건하게 하고 조화를 보존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행동에 관한 도덕적 판단들의 기초이고, 인간 미덕의 원천이다.

자기 이익과 미덕

오늘날 약간의 사람들은 스미스의 경제 체제를 움직이는 자기 이익이 그의 윤리를 움직이는 ‘동정’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여기에 그의 대답이 있다.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생각될지 몰라도,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하고, 비록 자기가 그들의 행복을 보는 즐거움 외에는 그들의 행복에서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행복을 자기에게 필요하게 하는 약간의 원칙들이 자기의 본성에 명백히 있다.’²

바꿔 말하면, 인간 본성은 복잡하다. 빵 굽는 사람은 자비에서 우리에게 빵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익사하는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강물에 뛰어들도록 자극하는 것이 자기 이익도 아니다. 스미스의 책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도덕적 영역에서) 평화롭게 그리고 (경제적 영역에서) 생산적으로 함께 살 수 있고 정말 사—는지 식별하려는 보완적인 시도들이다.

아니 정반대로 《국부론》은 확실히, 그것이 때때로 희화화(戲畫化)되듯이, 인정사정없는 자본주의(dog-eat-dog capitalism)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이익이 경제를 움직일지 모르지만, 만약 진정으로 개방적인 경쟁이 있고 강제가 없다면, 그것은 선을 위한 힘이 된다. 그리고 어쨌든, 스미스 자신의 인간성과 박애가 모든 페이지를 특색 짓고 있다. 그는 국가의 복지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상인들과 힘 있는 사람들의 특수 이익 위로 들어올려서, 자유

2 《도덕 감정론》, 제1부, 제1장, p. 9, 문단 1.

경쟁을 휘방 놓으려고 하는 제조업자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돕는 정부들을 비난한다.

인간 본성과 인간 사회

18세기 사상가들은 성직자들이 내리는 독단과 정치적 당국이 공포하는 명령보다 더 건전한 사회의 기초가 있음에 틀림없다고 믿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인(rational)’ 법 체계와 윤리 체계를 발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스미스는—과학, 언어, 예술 그리고 상업을 포함하는—인간 사회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타고난 본능이 과도하게 뽑내는 어떤 이성보다도 어떻게 더 나은 안내자인지 보여주었다. 만약 우리가 그저 ‘모든 체계들에서 특혜나 제한의 어느 하나’³를 제거하고,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에 의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효율적인 사회적 질서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 자유로운 사회 질서는 그것을 보존하는 데 왕과 대신들의 끊임없는 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이—정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의 존중과 같은—개인 간 행위의 일정 규칙들을 준수하는 데 정말 의존한다. 그러면 이로운 전반적인 사회적 질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생긴다. 스미스의 탐구는 사실상 이 운 좋은 결과를 야기하는 인간 행동의 자연적 원리들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3 《국부론》, 권 IV, 제9장, 제2부, p. 687, 문단 51.

2 스미스의 생애와 경력

마거릿 더글러스(Margaret Douglas)는 연줄이 좋은 법률가이자 전직 세관원이었던 자기 남편이 1723년 1월에 사망했을 때 이미 임신하고 있었다. 6월 5일 그녀는 자기들의 아이의 출생을 등록했는데, 그녀는 그에게 자기의 돌아간 남편의 이름, 애덤 스미스(Adam Smith)를 주었다. 그 소년은 성인이 되어 자기 시대의 지도적인 사상가들 중 한 사람이자 지금까지 쓰인 가장 영향력 있는 책들 중 하나의 저자가 될 것이다.

커콜디와 글래스고

우리는 그가 세 살 때 잠시 집시에 의해 유괴되었다가 그의 삼촌이 되찾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어린 시절을 거의 모른다. 그러나 그의 출생지의 일상생활은 그의 차후의 경력을 특징지을 많은 재료를 그에게 제공했음에 틀림없다. 에든버러에서 포스만(灣)(Firth of Forth) 건너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커콜디(Kirkcaldy)항은 배들이 어류를 물에 부리고, 지방 광산들에서 석탄을 수출하며, 철제품 제작 산업을 위해 고철을 갖고 돌아오는 무역 중심지였다.¹ 스미스는

¹ E. G. 웨스트(E.G. West), 《애덤 스미스: 그 사람과 그의 저작(Adam Smith:

선원들, 생선 상인들, 못 만드는 사람들, 세관원들 그리고 밀수업자들 곁에서 자랐는데, 그는 그들의 직업들을 《국부론》에서 서술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정이 변하고 있었다. 담배와 면화 같은 상품들에서의 남북 아메리카들과의 무역 증가는 커콜디와 같은 오래된 동부 항구들보다는 글래스고와 같은 현대 서부 항구들에 유리했다.² 스미스의 위대한 책은 또한 그러한 무역의 유형의 변동과 무역에 의존하는 공동체의 생활의 변동도 기록할 것이다.

학교에서, 책에 대한 그의 열정과 그의 비상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되었다. 그는 열네 살(그 당시 상당히 정상적인 연령)에 글래스고 대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 그는—리버테리언, 합리주의자, 공리주의자, 꾸밈없이 말하는 사람 그리고 당국 쪽에서 가시였던—위대한 도덕 철학자 프랜시스 허치슨(Francis Hutcheson) 밑에서 공부했는데, 허치슨은 바로 그 특성들의 약간으로 스미스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옥스퍼드와 유인

스미스는 뛰어났고, 옥스퍼드 대학교 베일리얼 대학(Balliol College)의 장학금을 받았다. 1740년, 이제 단지 열일곱 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그는 한 달 걸리는 말을 타고 하는 여행을 위해 말

The Man and His Works)》, Liberty Fund, Indianapolis, IN, 1976, p. 31.

2 R. H. 캠벨(R. H. Campbell)과 A. S. 스킨너(A. S. Skinner), 《애덤 스미스(Adam Smith)》, Croome Helm, London, 1982, pp. 9-10.

에 안장을 었었다. 만약 변창하는 상업의 글래스고가 후진적 커콜디에서 온 소년에게 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었다면, 잉글랜드는 다른 세계인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의 건축물의 웅장함과, 자기의 고향 스코틀랜드의 불쌍한 녀석들과 다른, 그것의 가족의 비만에 관해 썼다.

그러나 잉글랜드 교육 제도는 그에게 감명을 주지 못했다. 참으로, 그것은 그에게 잘못된 유인들의 힘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는데, 그는 이것들에 관련된 일련의 것들을 《국부론》에서 신랄하게 보여주었다. 옥스퍼드 선생들은 학생들의 수업료에서가 아니라 대규모 대학 기부금에서 지불받았다. 그 결과, 옥스퍼드에서는 ‘공립(public) 교수들의 대부분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 가르치는 척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포기했고,’³ 대학 생활은 ‘선생들의 이익을 위해, 혹은 더욱 정확히 말하면, 편함을 위해 고안되었다.’⁴ 스미스의 경제 교육은 빨리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베일리얼의 세계 최상급의 도서관 덕분에, 스미스는 고전, 문학 그리고 기타 과목들에서 독학할 수 있었다. 그는 1746년, 자기의 장학금의 만료 전에, 옥스퍼드를 떠나 커콜디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그는 문학, 물리학, 논리학 그리고 과학적 방법에 관해 쓰면서 두 해를 보냈다.

3 《국부론》, 권 V, 제1장, 제3부, 제2조, p. 761, 문단 f8.

4 상계서, 권 V, 제1장, 제3부, 제2조, p. 764, 문단 f15.

초기의 강의 경력

가족 연결을 통해, 지도적 법률가이자 사상가인 케임스(Kames) 경은 그에게 에든버러에서 영국 문학에 관해서와 법철학에 관해서 일련의 공개 강의를 하도록 초청했다. 이 강의들로부터, 우리는 심지어 그의 20대에도 스미스가 훨씬 더 뒤에 《국부론》의 본질적인 기초들을 형성할 (분업과 같은) 많은 주요 개념들을 이미 생각해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강의들은 대성공이었고 자기의 다음의 전직에 대한 디딤돌이 되었다. 1751년, 27살 때, 글래스고 대학교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논리학, 도덕 철학, 문학 그리고 수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에, ‘수사학(rhetoric)’은 오늘날의 함의들의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직 문체와 의사 전달의 연구만 의미했다.)

그의 철학 과목은 신학, 윤리, 법학 그리고 공공 정책을 다루었다. (오직 학생들의 노트들에만 잔존해 있는) 법학과 정책의 강의들은 수년 후에 《국부론》에 거의 말대로 나타날 (가격 체제의 작동, 보호무역주의의 단점 그리고 정부 제도와 경제 제도의 발달과 같은) 많은 아이디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성공하게 할 것은 윤리에 대한 스미스의 성찰들이었다. 1759년에 그는 그것들을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으로 출간했다. 멋있고 독창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판단들을 인간 사회 심리로서 설명했다. 스미스의 친구,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여러 권을 다수의

자기 친구들에게 보내었다—그리고 한 사람, 정치가 찰스 타운센드(Charles Townshend)는 아주 감명을 받아서 그는 스미스를, 300파운드의 후한 봉급을 평생 동안 지불하면서, 자기의 의붓아들, 어린 버클루 공작(Duke of Buccleuch)의 개인 가정교사로서 즉시 고용했다.

여행

비록 지적으로는 탁월하지만, 스미스는 개인 가정교사로는 이상한 선택이었다. 작가 제임스 보즈웰(James Boswell)은 그가 ‘온갖 종류의 주제들로 꽂 찬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악명 높게 열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한때, 생각에 빠져, 그는 차 대신에 빵과 버터를 꿀였다. 다른 때에는, 어떤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는 8마일을 걸어 던펌린(Dunfermline · 스코틀랜드 동부 파이프 주 남서부의 옛 도시)까지 가서야,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가 앞의 도로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도랑에 빠졌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스미스와 그의 학생은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 여행은 그 당시 모든 젊은 귀족의 교육의 일부였다. 파리에서 그들은 데이비드 흙의 생기에 찬 동석을 즐겼는데, 흙은 거기에 있는 대사의 보좌관이었다. 그러나 스미스의 구어(口語) 붙어는 매우 서툴렀고 그는 다른 접촉들을 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다. 지루함이 시작되었고 그는 흙에게 ‘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 한 권을 쓰기

시작했네,⁵고 말했다. 그 책은 《국부론》이었다.

프랑스의 남부를 거쳐, 제네바로, 그리고 파리로 돌아오는 자기의 후속 여행들에서, 스미스는 유럽의 문화, 정부, 상업, 규제 그리고 경제생활에 관해 누적적으로 사실을 획득했고, 고국의 것들과의 차이점들을 숙고했다. 대륙의 지도적인 선각자들 약간과 가진 토론들은 그가 자기의 위대한 책에 대해서 하고 있었던 생각을 더욱 예리하게 했다.

《국부론》

그 짝은 1766년에 런던으로 돌아왔다. 스미스는 커콜디에 돌아와 정착했고, 거기서 그는 이제 상당한 변화가 집을 살 여유가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와 사촌 재닛(Janet)과 함께 썼다. (스미스는 어머니가 1784년에 돌아갈 때까지 자기 어머니에게 여전히 헌신적인 채로였다. 비록 ‘대단히 아름답고 재주가 많은 젊은 숙녀에게’⁶ 일찍 한 번 애정을 가진 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결코 결혼하지 않았다.)

그는 커콜디에서 여러 해를—자기 건강을 다소 희생시키면서—자기 원고를 쓰고, 교정하고, 퇴고하면서 보냈다. 그러나 그는 1773년부터 1776까지 런던에서의 긴 기간으로 기운이 났는데, 그 기간

5 1764년 7월 5일자 데이비드 흄에게 보낸 편지.

6 《글래스고판》, 제3권, 주 K, pp. 349-50에 있는 D. 스튜어트(D. Stewart), ‘법학 박사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저작의 기술(Account of the life and writings of Adam Smith LLD),’ 1794.

동안 그는 화가 조슈아 레이놀즈(Joshua Reynolds) 경, 고대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 급진적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보즈웰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대립되는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사전 편찬자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 박사를 포함하는 기타 위대한 지성인들과의 교제를 즐겼다.

마침내, 《국부론》이 1776년 3월에 출간되었다. 그것은 대단한 상업적 성공이었고, 그저 몇 년 안에만도 많은 판들과 많은 언어들로 출간되었다. 그것은 실제적인 성공이기도 했는데, 무역 자유화와 같은 그것의 처방들은 공공 정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관세청장

스미스는 600파운드의 후한 봉급에 에든버러의 관세청장(Commissioner of Customs)의 직위로 보상을 받았다. 영국의 자의적이고 비효율적인 관세 제도의 대(大)비판자는 이제 그것에 관해 무언가 할 입장에 처했고, 그는 이 일에 부지런했다.⁷ 그는 다른 쟁점들—예를 들면, 아일랜드에 대한 무역 제한에 반대하는 것과 미국 식민지 ‘혼란(disturbances)’에 관한 것—에도 자문했다. 후에, 윌리엄 피트 수상은 프랑스와 무역 조약을 안출하는 데서 그리고 국가의 조세 체계의 광범위한 개혁을 집행하는 데서 스미스의 원칙들을 채택했다.

7 캠퐀와 스킨너(Campbell and Skinner), 《애덤 스미스(Adam Smith)》, pp. 200-203.

스미스는 친구들과의 토론과 논쟁을 매우 좋아했다. 1790년 7월, 에든버러에서 많은 그러한 저녁들 중의 하나 동안, 그는 피곤함을 느꼈고, 토론이 어떤 다른 장소에서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리에 들었다. 그는 며칠 후 사망했고 자기의 캐넌게이트(Canongate) 집 가까이 교회 경내에 있는 후하지만 절제된 기념비 아래에 묻혔다.

3 《국부론》

책의 광범위한 주제

애덤 스미스는 부분적으로 정치가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상업을 번창하게 하기보다, 그것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정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국부론》을 썼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 알 수 있는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스미스는 또한 새로운 경제 과학을 창시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은 선구적인 연구였고, 그의 용어들과 개념들은 오늘날의 것들과 조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의 본문은 산만하고, 긴 여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중국의 은의 가격에서 런던의 아일랜드 창녀들의 식사에 이르기까지, 사실들로 숲을 이루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책을 항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먼저 몇몇 그것의 주된 주제들에 집중하자.

가장 명백한 주제는 *상업에 대한 규제들이 근거가 없고 비생산적이라는 점*이다. 그 당시 지배적인 견해는 국가의 부란 국가가 보유하는 화폐의 양이라는 ‘중상주의(mercantilist)’ 사상이었다. 이것은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경화(硬貨)를 보답으로 얻도록, 국가가 가능한 한 많이 다른 나라들에 팔 필요가 있고, 자기의

현금 잔고가 해외로 새는 것을 막도록, 국가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가능한 한 적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무역 견해는 수입 관세, 수출 보조금, 세금 그리고 국내 산업에 대한 특혜의 거대한 망을 창출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스미스의 혁명적인 견해는 부란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국가의 금고에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국가의 부의 진정한 측정치는 국가가 만들어 내는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이다.* 그는, 오늘날의 경제학에서 아주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국내 총 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의 개념을 고안해 냈다.¹ 그리고 그 생산물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국가의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또 하나의 중심적인 주제는 이러한 *생산 능력이 분업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 축적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생산을, 각각이 전문가 손에 의해 착수되는, 많은 작은 작업들로 분할함으로써 막대한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생산자들에게 잉여를 남기고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새롭고 더욱더 효율적인 노동 절약 기계류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스미스의 세 번째 주제는 국가의 *미래 소득이 이 자본 축적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더 나은 생산 과정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을수록, 미래에 더 많은 부가 창출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자기

1 P. J. O'Rourke, *On the Wealth of Nations*, Atlantic Monthly Press, New York, 2006, pp. 7-8에 의해 정당함이 깔끔하게 밝혀진 주장.

의 자본을 축적하려면, 그들은 그것이 도둑으로부터 안전할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번영하는 국가들은 자기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그것을 잘 관리하며, 그것을 보호하는 국가들이다.

네 번째 주제는 *이 체제가 자동적이라는 것*이다. 물건들이 희소할 때,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 더 많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들을 공급하는 데 더 많은 이윤이 있고, 그래서 생산자들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한다. 공급 과잉이 있는 곳에는, 가격과 이윤이 낮고 생산자들은 자기의 자본과 기업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따라서 근면은, 중앙 지시의 필요가 없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필요품들에 계속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오직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이 있을 때에만 그 체제는 자동적이다*. 정부들이 특권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이나 독점을 부여하든지 그들을 관세 장벽 뒤에 보호할 때, 그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존하는 필수품에 대해 더 높은 비용에 직면하여 이것으로부터 가장 고통을 겪는다.

《국부론》의 추가적인 주제는 어떻게 해서 *경제적 진보의 상이한 단계들이 상이한 정부 제도들을 낳는지* 하는 것이다. 초기의 수렵인-채집인들은 가치 있는 것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농부가 되었을 때, 그들의 토지, 농작물 그리고 가축은 중요한 재산이었고 그들은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제도와 사법 제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시대는 시장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데서 얻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을 돕는 데 정치 과정을 사용할

간계(奸計)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경쟁과 자유로운 교환은 독점, 조세, 특허, 통제 그리고 생산자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기타 특권들로부터 위협을 당한다.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스미스는 정부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방위를 지속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교육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핵심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시장 경제를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해야 하고, 그것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생산과 교환

《국부론》의 다섯 ‘권(Books)’의 첫 번째는 생산과 교환의 메커니즘들과 그것들이 국민 소득에 행하는 공헌을 설명한다.

전문화의 편익

핀 공장의 예를 사용하여, 스미스는 분업(division of labour)—노동 전문화—이 막대한 산출물 증가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핀을 만드는 것은 ‘사소한 제조업(trifling manufacture)’ 같지만, 실제로 아주 복잡하다. 철사는 뽑아내고, 곧게 하고, 자르고, 뿔죽하게 해야 한다. 꼭대기는 대가리를 받도록 평평하게 갈아야 하고, 그 다음 대가리를 만들어서 붙여야 한다. 핀들은 희게 해서 종이에 끼워야 한다. 참으로, 그 과정에서 대략 열여덟 가지의 상이한 작업들이 있다.

이 모든 상이한 일들을 하는 단 한 사람은 아마도 스무 개의 핀도 만들 수 없을 것(이고 만약 그가 또한 필요한 금속을 채굴하고 제련해야 한다면, 아마도 한 해에 심지어 한 개의 핀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상이한 사람들 사이에 일이 나누어지고, 이들 각자는 별개의 작업들 가운데서 단지 한두 개만 한다. 그들 사이에서 핀 제조업자들의 총 열 명의 팀은 실제로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각자에게 4,800개에 해당하거나, 단 한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일일 산출량의 240배에 해당한다.

이 전문화는 아주 효율적이어서 그것은 회사 안에서 생길 뿐만 아니라 산업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국가들 사이에서도 생긴다. 농부들은 농작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데 전문화한다. 그들의 땅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또한 자기들의 모든 가정용품들을 만드는 데도 시간을 써야 했던 경우보다 훨씬 더 잘 경작되고, 더 생산적이다. 그러나 제조업자들은 가정용품을 공급하고 자기들의 식량의 생산을 농부들에게 맡겨서 매우 기쁘다. 마찬가지로, 국가들은 자기들이 가장 잘 생산하는 재화를 수출하고 다른 국가들이 더 잘 생산하는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전문화한다.

효율 증가는 사람들이 같은 일을 여러 번 할 때 얻게 되는 숙련에 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스미스는 말한다. 한 가지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덜 낭비되고, 전문화로 사람들은 산출량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데 헌신적이고 노동 절약적인 기계류를 사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의 생산력의 가장 큰 개선은, 그리고 그것이 어느 곳에든 돌려지거나 적용되는 숙련, 솜씨 좋음,

그리고 판단의 더 큰 부분은, 분업의 효과였던 것 같다.’²

분업은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일용품의 생산에서조차도 수천의 사람들의 협동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낚싯줄이 몸을 감싸는 양털 외투는, 그것이 조잡하고 거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의 공동 노동의 작품이다. 목동, 양털을 가려내는 사람, 양털을 빚는 사람, 염색업자, 양털을 얼레빗질하는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 실 잣는 사람, 짜는 사람, 천을 바래고 다듬는 직공, 마무리하는 직공은,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심지어 이 소박한 생산조차도 완성하기 위해 모두 자기들의 상이한 기술들을 결합해야 한다.³

더군다나, 양털의 수송은 선원, 조선공, 그리고 돛 꿰매는 사람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심지어 양털을 자르는 데 필요한 큰 가위도 광산업자와 철공을 필요로 할 것이다. 리스트는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수천 명의 고도로 효율적인 전문가들의 이러한 협업은 선진 국가들의 큰 부의 원천이고, 양털 외투와 같은 품목들을 심지어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이것은 스미스가 ‘국민들의 가장 낮은 계급들에도 확대되는 보편적인 풍요’⁴라고 부른 것이다.

2 《국부론》, 권 I, 제1장, p. 13, 문단 1.

3 상계서, 권 I, 제1장, p. 22, 문단 11.

4 상계서, 권 I, 제1장, p. 22, 문단 10.

교환으로부터의 상호 이득

스미스의 정수(精髓)인 제2장은 **물질적 교환(material exchange)**이 이러한 생산적 효율의 편익을 공동체 여기저기에 어떻게 보급하는지 설명한다. 약간의 특별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재능들을 통해, ‘원시적인 국가(primitive country)’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화살을 만드는 데 더 능할지 모르는 반면, 또 한 사람이 금속 세공에 더 능하다고, 그는 추측한다. 전문화함으로써, 어느 쪽이든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살 제조인은 더 많은 화살을 만들고, 대장장이는 더 많은 칼을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화살과 칼을 교환한다. 이제 양쪽 다 유용한 도구 혼합을 가지고 있고 각자는 다른 쪽의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생산으로부터 편익을 얻었을 것이다.

‘수송하고, 물물 교환하며, 화폐 교환하는(truck, barter, and exchange)’ 성향은 인간 행동의 타고난 그리고 보편적인 특징인데, 양 당사자 다 편익을 얻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참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가 그것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교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대한 통찰이다. 우리의 세계와 같이 스미스의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재화들은 다른 재화들과 물물 교환되기보다는 화폐와 교환되었다. 화폐가 부로 간주되었으므로, 그 과정으로부터 오직 판매자만이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같이 보였다. 그러나 스미스는 편익이 상호적임을 보여준다. 교환함으로써, 양쪽 다 자기들이 원하는 재화들을 자기들이 혼자 힘으로 그것들을 만들 때 들여야 할 노력보다 더 적은

노력으로 얻는다. 각각은 그 교환으로 더 부유해진다. 바꿔 말하면, 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상업으로 *창출된다(created)*. 그것은 획기적인 생각이었다.

또 하나의 중대한 통찰은, 설사 각 당사자가 다른 쪽의 복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를 제안하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교환이 여전히 양쪽 다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행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어놓게 할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미스의 유명한 말로,

우리가 우리의 정찬을 기대하는 것은 고깃간 주인, 양조업자, 빵 굽는 사람의 자비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이익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으로부터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가 아니라 그들의 자애(自愛)에 말을 걸고, 결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득에 관해 이야기한다.⁵

‘자애(self-love)’나 ‘자기 이익(self-interest)’이라는 말로, 스미스는 ‘탐욕(greed)’이나 ‘이기심(selfishness)’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의미는 18세기의 의미, 즉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더 나쁘게 함으로써 기꺼이 이득을 얻으려는 어떤 불쾌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신

5 상계서, 권 I, 제2장, pp. 26-7, 문단 12.

의 복지를 돌보려는 전적으로 마땅하고 적절한 관심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아주 타고난 것이고 중요해서 《도덕 감정론》에서 그는 그것을 ‘분별(prudence)’⁶이라고 부른다. 바로 그 책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sympathy)’이 (혹은 우리가 말하곤 하듯이, 공감(empathy)이) 인류의 현저한 특징들 중 하나이고 정의(justice)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가 그것의 근본적인 규칙들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더 넓은 시장은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

우리가 교환으로부터 얻는 편익은 우리를 전문화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환할 수 있는 잉여를 증가시키게 하는 것이다. 그 전문화가 정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교환이 가능한 정도에—즉, 시장(market)의 범위에⁷—달려 있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예를 들면, 오직 ‘큰 읍(great town)’만 짐꾼들에게 충분한 고객들을 제공한다. 반면에 드문드문 있는 공동체들은 심지어 전문 목수나 석공조차도 먹여 살릴 수 없어서,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더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른다.

명백히 시장을 정말 확대하는 한 가지는 ~~화폐~~(money)다.⁸ 만약 배고픈 양조업자가 목마른 빵 굽는 사람을 항상 찾아내야 한다면 삶은 지루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폐의 수단을 사

6 《도덕 감정론》, 제6부, 제1절.

7 《국부론》, 권 I, 제3장.

8 상계서, 권 I, 제4장.

용하는—우리의 잉여 제품을 주고 돈을 얻고, 그 다음 돈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다른 제품들을 얻는—이유이다.

가치의 지수

그러나 교환이 화폐를 통해 중개되건 아니건 상이한 제품들이 교환 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처럼)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어떤 것이 거의 아무런 교환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다이아몬드처럼) 본질적으로 쓸모없는 어떤 것이 높은 ‘교환 가치(value in exchange)’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스미스에게는 수수께끼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한계 효용 이론을 가지고 해결할지 모른다. 다이아몬드는 아주 희귀해서 추가적인 한 개는 크게 소중한 것이지만, 물은 아주 풍부해서 추가적인 한 잔의 물은 실제로 우리에게 별로 쓸모없다. 또는 우리는 수요 공급 분석에 호소할지 모른다.

불행하게도, 첫 번째 도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국부론》의 이 시점에서, 스미스는 아직 두 번째를 완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한 제품에 특정 가치를 주는 것이 그 제품에 관한 무엇인지 식별하려고 애쓴다.

원시 사회들에서는, 가치는 원래 그 품목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labour)을 반영했음에 틀림없다는 점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것 같았다.⁹ 결국, 우리가 파는 제품을 만드는 데 ‘수고와 고민(toil and trouble)’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제품을 만드는 노력을 아끼

9 상계서, 권 I, 제5장.

기 위한 바로 그 목적에서다. 어느 쪽이든 자기들이 노력을 덜 들이고 스스로 만들 수 있을 어떤 것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환율은 동등한 노력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사냥꾼들 사이에서 ‘비버를 쏘아 잡는 것이 사슴을 쏘아 잡는 것에 비해 노동이 보통 두 배가 든다면, 한 마리의 비버는 자연적으로 두 마리의 사슴과 교환되거나 가치가 있을 것이다.’¹⁰ 물론, 스미스는 모든 노동이 동등한 것이 아님을 관찰한다. 한 생산 과정은 더 어려운 일이거나, 더 많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거나, 장기간의 훈련과 경험을 요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시장에서의 흥정과 교섭에 의해’¹¹ 감안될 것이다.

《국부론》의 이 부분은 가치의 ‘노동설(labour theory)’로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후자는 다음에는 근로자들의 노동이 자본주의 고용주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도둑질당한다고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할 수 있게 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확실히 세상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스미스는 정말로 우리를 노동 가치설로 이끌고 있지 않다. 그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주요 경제 측정치로 간주하는 것, 총 생산 비용(total costs of production)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수렵 사회에서는, 이 비용은 거의 전적으로 노동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서 멀리 떨어져 진화했다. 그리고 스미스는 더욱 현대적인 경제 체제들에서 사용되는 다른 생산 요소들(factors of production)—

10 상계서, 권 I, 제6장, p. 65, 문단 1.

11 상계서, 권 I, 제5장, p. 49, 문단 4.

토지와 자본—을 계속해서 식별한다. [생산 요소라는] 이러한 개념도 다시 오늘날 경제학에서 근본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리고 뒤에, 스미스는 수요와 공급을 도입하여 가격에 대한 그것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전 생산 및 분배 체제를 움직이는지도 검토한다. 그것은 선구적인 내용이고, 함께 합쳐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면서 사회가 어떻게 유일한 가치 원천으로서의 노동에서 멀리 떨어져 진화했는지를 추적하는, 여러 장이 그에게는 필요하다.¹²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

어떤 종류든 근대적 생산을 위해서는 당신은 그 일을 할 사람들, 그들이 그것을 할 도구와 기계류 같은 장비, 그리고 일할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총 비용은 세 가지 넓은 생산 요소(three broad factors of production) 사이에 나누어질 수 있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다.¹³ 수렵 경제에서와 달리, 이 요소들은 상이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들은 생산되는 것으로부터의 소득의 한 몫에 권리가 주어져 있다. 물론, 근로자들의 노동(labour)이 있어서, 임금(wages)으로 반영된다. 또한 고용주들이 제공한 자본(capital)(스미스는 스톡(stock)이라 부른다)도 있어서, 이윤(profits)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토지(land)의 사용이 있어서, 지주들에게 지불되는 지대(rents)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은 모두 생산에 기여하고, 지주,

12 상계서, 권 I, 제5장-제11장.

13 상계서, 권 I, 제6장.

고용주, 그리고 근로자 모두를 상호 의존적이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상호 의존은 단순한 생산만을 넘어선다. 많은 생산은 교환에 쓸 예정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그 제품의 평가와 분배에도 결정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스미스는 우리를 점차, 국가의 산출물의 생산, 평가, 그리고 분배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일부가 되는 기능하는 경제 체제(system)의 서로 관계가 있는 부분들로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다.

시장들이 어떻게 생산을 움직이는가

그 다음 스미스는 이 체제가 어떻게 생산을 움직이고 지휘하는지 설명한다. 제품들이 실제로 교환되는 ‘시장 가격(market price)’은 (그가 ‘자연 가격(natural price)’이라 부르는) 그것들의 총 생산 비용보다 더 높거나 더 낮을지 모른다고 그는 말한다.¹⁴ 그것은 제품 수요(혹은 적어도 살 돈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유효 수요(effectual demand)’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시장에 내놓는지에, 달려 있다. 만약 시장 가격이 판매자들의 총 생산 비용보다 더 높다면, 그들은 이윤을 번다. 만약 그것이 더 낮다면, 그들은 손실을 본다.

시장 가격은 결코 오랫동안 생산 비용 밑에 머무를 수 없다. 판매자들은 지속적인 손실을 겪기보다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아주 더 높을 수도 없다. 그것은 별 이윤이 있다고 경쟁자들에

14 상계서, 권 I, 제7장.

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다.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시장 가격이 다시 깎여져 매겨질 것이다. 그래서 산업의 목적은 정확하게 균형량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물론, 경쟁은 불완전할지 모른다. 규제가 시장 진입을 제한할지 모른다. 독점자는 시장에 물품을 충분히 들여놓지 않음으로써 가격을 올릴지 모른다. 혹은 정보가 부족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더 값싼 생산 과정의 고안자는, 경쟁자들도 역시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수년간 이례적인 이윤을 얻을지 모른다. 그래서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은 달라질지 모른다.

임금은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

그러한 불완전들은 또한 노동 시장에서도 존재한다.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은 상호 의존적일지 모르지만, 근로자들과 고용주들 및 지주들과의 투쟁은 불평등한 투쟁이다. 비록 고용주들 사이의 담합은 ‘끊임없고 한결같다(constant and uniform)’¹⁵ 할지라도, 고용주들은 근로자들 사이의 담합을 금지하는 법률들의 통과를 위해 애쓰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그러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그릇된 경제임을 고용주들은 기억해야 한다. 더 나은 보수와 조건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근로자들의 최상의 친구들은 증가하는 국민 소득과 자본 증가인데, 그것들이 임금을 다투어 올리기 때문이라고, 그는 추측한다. 잉

15 상계서, 권 I, 제8장, p. 84, 문단 13.

여 수입을 가지고 있는 지주는 더 많은 하인들을 고용할 것이다. 잉여 자본을 가지고 있는 베 짜는 사람이나 구두 만드는 사람은 조수들을 고용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국부가 증가할 때—그리고 오직 그 때만—노동의 수요가 증가한다. ‘자유주의적 노동 보상(liberal reward of labour)’은 전적으로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임금들의 진정한 척도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미스는 조세가 양초, 가죽, 술, 그리고 자기 시대의 기타 사치품들의 가격을 올렸지만, 식량과 기타 필수품들은 시장 체제 덕분에 모두 더 싸지고 있었다고 언급한다. 그것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구성원들의 훨씬 태반이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설마 번영하고 행복할 리가 없기’¹⁶ 때문이다.

시장 임금을

이론적으로 노동으로부터의 수익이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스미스는 과감하게 말한다. 만약 한 직업이 더 나은 보상을 받으면, 사람들은 다른 직업들로부터 떼를 지어 들어올 것이고 시장은 곧 균형을 조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률들은 왜 실제로 상이한가?

그의 대답은 우리가 ‘금전적인(pecuniary)’ 보상뿐만 아니라 또한 비화폐적 노동 보상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직업들은

16 상계서, 권 I, 제8장, p. 96, 문단 36.

힘들거나 싫다(이것은 고깃간 주인과 사형 집행인이 베 짜는 사람보다 보수가 더 나은 이유이다). (벽돌쌓기처럼) 어떤 직업들은 계절적이다. (의료와 같은) 다른 것들은 그것들이 큰 대중 신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다. 어떤 직업들(예를 들어, 법률)은 배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심지어 그러한 투자 후에도, 실제 성공의 가능성이 적을지 모른다(오페라 가수). 이 모든 요소들은 특정 직업들에서 노동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금과 정치

그러나 정치적 요소들도 역시 소득과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 규정들은 사람들이 특정한 직업들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 스미스는 셰필드의 칼 장수가 한 번에 한 명을 넘는 도제를 가지거나 노퍽의 베 짜는 사람과 잉글랜드의 모자 제조인이 두 명을 넘는 도제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들을 인용한다. 이러한 진입 장벽들은 장인 칼 장수, 베 짜는 사람 그리고 모자 제조인의 자격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의 소득을 떨어지지 않게—하지만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들 자신의 노동의 ‘신성한 소유권(sacred property)’을 빼앗음으로써만이 그렇게—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근로자들이 침체하는 직업에서 그들을 더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스미스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흥겹게 떠들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별로 같이 만나지 않지만, 그 대화는 대중에 대한 음모나 가격을 올리려는 어떤 간계로 끝난다,’¹⁷고 유명하

게 단언한다.

그러나 (그는 즉각 계속한다) 정치인들과 법조계는 공모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담합이 더욱 가능성 있고 더욱 효과적이게 하는 규정들을 통과시키고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는 동업자 조합들 (craft guilds)(혹은 ‘법인 단체들(incorporations)’이 누리는 종류의 특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들은 중세 시대 이래로 자기들 자신의 독점들을 방심하지 않고 지켰고, 누가 직업에 가입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제한했으며, 자기들이 개업을 허가한 사람들의 명부를 유지했고, 자기들 자신의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회원들로부터 기금을 모았다.

그러나 어느 동업자의 회원들의 공공 명부를 확립하는 법률은 그들이 서로 쉽게 접촉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공모 회합들이 더욱 일어날 것 같게 한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강제적인 동업자 복지 기금 (trade welfare funds)은 그러한 회합들을 불가피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동업자들의 회원들은 자기들의 징수액을 납부하기 위해 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이 더 멀리 가서 동업자들이 다수결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게 허용하는 곳에서는, 그것은 ‘어떠한 자발적인 도당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더 지속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것이다.’¹⁸

스미스에게는, 기업들에 대해 유일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규율은 고객들을 잃을 두려움이다.¹⁹ 고객들이 주권적인 자유 시장은

17 상계서, 권 I, 제10장, 제2부, p. 145, 문단 27.

18 상계서, 권 I, 제10장, 제2부, p. 145, 문단 30.

—너무나 자주 자기들의 공언된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낳는—아무리 많은 공식적 규칙들보다도 기업 행동을 통제할 더 확실한 방법이다.

자본과 이윤

똑같이 잘못된 규정들은 스미스가 스톡(stock)²⁰이라 부르는 다음의 생산 요소에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그가 차후에 설명하듯이,²¹ 이것은 의복이나 식량 재고와 같이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 따로 둔 재화, 기계류와 같은 고정 자본, 그리고 진행 중인 작업과 만 들어졌지만 아직 선반에 있는 재화를 포함하는 유동 자본을 포함한다.

스미스는 스톡의 이윤—즉, 생산적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수익—이 매우 가변적이라고 논평한다. 그것은 상품 가격, 경쟁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화들이 운반되고 있거나 저장되어 있을 때 그것들에 일어날 수 있는 ‘천 가지의 다른 사건들(a thousand other accidents)’에 달려 있다.²² 그러나 이자율은 수익성의 대충의 척도가 된다. 만약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기꺼이 많이 지불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 빌린 자금을 생산에 사용할 때 그들이 상당한 이윤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19 상계서, 권 I, 제10장, 제2부, p. 146, 문단 31.

20 상계서, 권 I, 제10장.

21 상계서, 권 II, 제1장.

22 상계서, 권 I, 제9장, p. 105, 문단 3.

실례로서, 그는 아메리카 식민지들에 존재하는 매우 높은 이자율들을 지적하는데, 거기에는 풍부한 토지가 있지만 그것을 경작할 자본이나 노동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그러므로 토지는 싸지만 자본과 노동은 비싸다—높은 이윤, 높은 이자율 그리고 높은 임금에 반영되듯이.

토지와 지대

토지와 지대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는²³ 그가 지주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그가 고용주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들은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토지 소유권과 토지의 위치 및 비옥도만을 통해서 ‘독점 가격(monopoly price)’을 누린다. 더군다나, 부유한 상인들이 인상적인 시골 토지를 소유하려는 욕망은 토지 수요와 그러므로 토지 가격 및 지대를 더욱더 증가시킨다.

물론, 토지는 식량과 공간뿐만 아니라 광물들도 제공한다. 스미스의 긴 *은에 관한 여담(Digression on Silver)*은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품은 더 싸지지만 토지는 더 비싸진다는 자기의 주제를 지지하기 위해 많은 증거를 모아 정리한다.

자동적인 체제

요약하자면, 한 국가의 ‘연간 생산량(annual produce)’은 지대, 임금 그리고 이윤으로 분해되어, 지주들, 근로자들 그리고 고용주들이

23 상계서, 권 I, 제11장.

불가피하게 상호 의존하게 된다.²⁴ 그들은 재화들이 만들어 내어지고, 교환되고, 사용되고, 대체되는 것이—그리고 자원들이 자기들의 최상의 용도에 놓이는 것이—모두 아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막힘이 없는 흐름 체제의 부분들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기득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빗나갈 수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자유 시장 체제를 왜곡하는데 정부 권력을 사용한다. 지주들은 너무 게으르지 모르고 근로자들은 너무 무력할지 모른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경쟁을 억제하는 규정들의 통과를 꾀할 유인과 예민함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문으로부터 생기는 어떠한 새로운 상업 법률이나 규정의 제안도 항상 아주 조심해서 경청해야 하고, 가장 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의심하기도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오래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한 연후가 아니면 결코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이익이 대중의 이익과 결코 꼭 같지 않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대중을 속이고 심지어 억압하는 데도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따라서 많은 경우 대중을 속이기도 했고 억압하기도 했던 사람들의 주문으로부터 생긴다.²⁵

24 상계서, 권 I, 제11장.

25 상계서, 권 I, 제11장, p. 267, 문단 10.

자본의 축적

《국부론》의 권 II는 *자본(capital)*을 쌓아 올리는 것에 관한 것인데, 스미스는 이것이 경제적 진보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단언한다. 잉여의 창출은 교환과 전문화가 가능하게 한다. 이 전문화는 더욱더 큰 잉여를 쌓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은 다음에는 새로운, 전용의, 노동 절약적인 장비에 재투자될 수 있다. 그것은 선순환이다. 이러한 자본 증가 덕분에, 번영은 커지는 파이가 된다. 한 사람(이나 한 국가)은 다른 한 사람이 더 부유해지기 위해 더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 그와는 반대로, 부가 커짐에 따라, 전 국가가 더 부유해진다.

화폐

스미스에 따르면, 화폐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²⁶ 그것은 단지 교환 수단일 뿐이다. 실질 부는 화폐가 사는 것에 있지, 주 화폐 자체에 있지 않다. 결국, 금과 은의 구매력은 변동한다. 그리고 오늘 한 기니(guinea)의 소득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기니를 내일 쓸지 모르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소득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그 기니를 다음 날 쓸지 모르고, 세 번째 사람의 소득을 제공한다. 그래서 유통 중인 화폐의 양은 명백히 국가의 총 소득과 같지 않다. 중상주의자들이 그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화폐는 자기의 효과들을 정말 가지고 있다. 그것이 빈

26 상계서, 권 II, 제2장.

등거릴 때, 그것은 쓸모없는 도구—‘비생산적인 자본(dead stock)’—이지만, 효율적인 은행업은 그것이 더 열심히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법정 불환 화폐(fiat money)(여기서는 정부들은 다만 자기들이 인쇄하는 지폐를 법화라고 선언할 뿐이다)는 스미스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은행들은 자기들의 금 준비금에 의해 뒷받침되는 은행권을 발행했다. 이것은 현금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는데, 하기야 그는 만약 은행들이 자기들의 은행권을 남발하면 발생할 위험을 알았다—그는 많은 스코틀랜드 은행들이 무너진 1772년 은행업 위기 직후에 쓰고 있었다. 그는 경쟁의 위협이 은행들을 계속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은행 규제의 역할을 인정했다. (스미스는 모든 경제 규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 복지에 비해 특별 이익들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규제만 반대한다.)

소비와 투자

스미스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구분, 총 소득(gross income)과 순 소득(net income)—총 소득에서 그것을 얻는 비용을 뺀 것—사이의 구분을 한다.²⁷ 노동과 저축에 관한 제3장은 그 분석을 계속하는데, 비록 그것의 용어법이 현대 독자들을 혼란시킬 수 있지만, 《국부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스미스는 노동을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으로 나눈다. *생산적인 노동*(productive labour)으로 그는

²⁷ 상계서, 권 II, 제2장.

그 비용을 초과하고—제조업 직원의 노동과 같이—재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잉여를 낳는 작업을 의미한다. *비생산적인 노동* (unproductive labour)으로 그는 의사들이나 음악가들, 법률가들이나 꼭두각시를 부리는 사람들, 공무원들이나 광대들의 그것과 같이 즉각 소비되고, 재투자될 수 있는 수입을 낳지 않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는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 사이의, 오늘날 경제학에 아주 기본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즉각적인 서비스들을 소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미래 소득이 달려 있는 자본의 유지와 확대에 투자할 잉여를 자신에게 덜 남긴다.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소비할수록, 우리는 미래 성장과 소득을 더 많이 포기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가 아주 많이 소비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을 남겨놓지 못할 수 있다. 참으로, 아주 많아서 우리는 심지어 그것을 *유지/하*지(maintain)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자본을—스미스가 말하듯이, ‘탕아(prodigal)’가 ‘자기의 지출을 자기의 소득 내로 국한하지 않고,’ ‘자기의 조상들의 검약이... 산업의 유지에 바쳤던 자금을 가지고 게으름의 임금’ 지불함으로써 하는 것처럼²⁸—*소비/하*는(consuming) 것에 해당한다.

자본은 또한 잘못된 투자 결정(스미스가 ‘부실 관리(misconduct)’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서도 소진될 수 있다. 이것이 국가의 금 및 은 적립금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확실히 그것의 생산 능력을 줄

28 상계서, 권 II, 제2장, p. 339, 문단 20.

인다고 그는 중상주의자들에게 환기시킨다. 그리고 만약 법의 지배가 없다면, 자본은 도둑맞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애초 그것을 축적할 유인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큰 국가들은 사적 방탕이나 부실 관리로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데, 하기야 그들이 때때로 공적 방탕이나 부실 관리로 가난해지긴 한다.’²⁹ 보통 사람들은 만약 자기들이 더 잘 살려면 자기들이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부들은 자본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덜 집중한다. 그들의 역할은 현재 서비스들에 돈을 쓰는 것이지, 생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들의 거의 모든 수입은 따라서 *비생산적인* 고용인들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스미스는 관찰한다. 그래서

왕들과 대신들이 사인들의 경제를 돌보아주는 척하는 것은 . . . 최고로 뻔뻔하고 건방지다. . . . 그들 자신은 항상, 그리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회에서 가장 씹씹이가 헤픈 사람들이다. . . . 만약 그들 자신의 낭비가 국가를 망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민들의 낭비는 결코 국가를 망치지 않을 것이다.³⁰

‘정부의 낭비(profusion of government)’로 납세자들이 ‘자기들의 자본들을 잠식하지(encroach upon their capitals)’ 앓을 수 없을지

29 상계서, 권 II, 제3장, p. 342, 문단 30.

30 상계서, 권 II, 제3장, p. 346, 문단 36.

몰라서 드디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생산물의 낭비와 저하를 개인들의 모든 검약과 좋은 행동도 보상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장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게 건전한 체제다. 큰 정부는 국가들을 퇴보시킬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의 그것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조건을 더 낮게 하려는 한결같은, 항구적이며, 끊임없는 노력은, . . . 정부의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의 가장 큰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종종 개선을 향한 상황의 자연적인 진전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력하다.³¹

자본에 관한 추가적인 성찰

스미스는 자본이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관찰한다.³² (어장과 같은) 어떤 자산들은 즉각적인 소비를 준비한다. (기계류와 같은) 다른 것들은 원산품과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송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종종 무시되지만 똑같이 중요하고 생산적인, 소매 자본은 재화를 더 작고 소비할 수 있는 단위들로 나누는 데 사용된다—그래서 우리가 쇠고기를 원할 때 우리는 통째의 황소를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선술집을 허가하는 것과 같이 어떤 곳에서건 소매업자들의 수를 제한하는 공식적인 조치들에 관한 재미있는 여담으로 스미스를 몰고 간다. ‘일반적인 명정(酤酤) 성향을 야기하는 것은 선술

31 상계서, 권 II, 제3장, p. 343, 문단 31.

32 상계서, 권 II, 제5장.

집들의 다수가 아니라... 그 성향이... 불가피하게 다수의 선술집에 일을 준다,'³³고 그는 말한다. 어떤 다른 것과도 같이, 소매업도 수요를 따른다.)

그러나 권 II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제품의 저축 부분은, 그 제품 모두를 소비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우리의 생산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고, 이것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미래에 우리의 제품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의 확장 순환이고 (중상주의자들이여 주목하시라) 우리의 은행 금고에 있는 금속의 양과 무관하다.

자본의 축적을 통하여, 더 전문적이고 더 노동 절약적인 과정들이 개발될 수 있다. 분업이 심화될 것이고, 이것이 다음에는 더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스미스는 말한다. 그러므로 자본이 확대됨에 따라, 임금이 오를 것이다. (물론 스미스는 산업 혁명의 완전한 영향력이 뚜렷해졌을 때 이전에 그리고 육체노동이 경제에 기본이었을 때 쓰고 있었다. 그는 기계들이 실제로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다.)

바꿔 말하면, 시장 경제는 국부를 증대하는 데 유례가 없고, 이 부는 바로 가장 가난한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확산된다. 참으로, 이 체제를 채택하는 부유한 국가들의 가난한 사람들은 채택하지 않는 가난한 국가들의 부자들보다 더 잘 산다. 그것은 세계화 메시지다. 국가들은 만약 자기들이 여전히 자급자족하려고 하거나 다른 국가

33 상계서, 권 II, 제5장, p. 360, 문단 7.

들에 대해 무역 장벽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 잘 산다.

경제 제도의 역사

권 III은, 때로는 역사적 추측을 통해서, 때로는 풍부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경제 관계의 발전을 고찰한다. 스미스는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진화를 추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읍의 성장은, 그리고 읍과 시골의 상호 의존은, 전적으로 자연스럽다고, 그는 단언한다. 장인들은 자기들의 식량을 생산하는 데 농부들을 필요로 하지만, 농부들은 자기들의 장비를 만드는 데 장인들을, 그리고 자기들의 재화의 시장을 제공하는 데 읍을, 필요로 한다. 참으로, 읍이 클수록, 시장이 더 크다. 그것은 (그 당시의 ‘중농주의(physiocrat)’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읍이 그저 시골에 기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양쪽 다 자기들의 상이한 보급물들의 교환으로부터 가치를 보탠다.

스미스는 유럽에서 봉건 질서의 붕괴를 기록하고, 로마 제국 멸망 후 봉건법(federal law)의 기원들과 상업이 어떻게 그 봉건법이 대체되게 했는지를 탐구한다.³⁴ 거래와 상업의 시대 이전에는, 부가 대영주들에게 있었다고, 그는 추측한다. 그리고 이 귀족들은 불가피하게 또한 지방 법적 당국도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의적인 권력이었는데, 봉건법이 그것을 완화하려는 시도로서 발생되었다—비록 단지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지만. 그러나 거래와 상업의 융성으

34 상계서, 권 III, 제4장.

로 지주들의 부(와 따라서 권력)가 잠식되고 그들의 종복들이 독립적인 소작인들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소작인들은, 이제 자기들 자신의 열망을 가지고서, 더 많은 안전을 요구했고, 봉건 체제는 지체 높은 사람들과 천민들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의 지배에 길을 양보했다. 상업의 융성은 정치 권력에서 경제 권력을 분리했었다. 그리고 경제 권력은 참으로 강력하다.

스미스의 견해로는, 이것은 운 좋은 결과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의 자본을 보호했고 거래, 상업 그리고 제품이 시민적 정의의 보호 아래 증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일반 대중에 봉사할 의도가 조금도 없었고 오직 자기들 자신의 재산과 안전만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의 집단들에 의해 이로운 결과가 초래되었다.

경제 이론과 정책

권 IV에서, 스미스는 자기의 경제적 개입주의 비판을 내세운다. 그는 중상주의를 가지고 그리고 화폐와 부가 같은 것이라는 그것의 잘못된 견해—와 가능한 한 많은 금과 은을 계속 보유하기 위하여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확대하려는 그것의 정책—를 가지고 시작한다.³⁵

35 상계서, 권 IV, 제1장.

중상주의자와 화폐

화폐는 그저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스미스는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외국 무역은 총 상업의 작은 일부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금의 이동은 큰 국가를 거의 파멸시킬 것 같지 않다.

물론, 중상주의자들은 금이 내구적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수출하는 국가들이 부정하게도 수십 년에 걸쳐 그것을 축적할 수 있었던 반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썩기 쉬운 상품들을 받고 그러한 내구적인 상품을 준다고 말한다. 스미스는 우리가 썩기 쉬운 포도주를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교환으로 내구적인 금속 제품을 수출하게 되어 아주 행복하다고 되받는다.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향아리들과 냄비들을 축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우리도 금과 은을 그것들의 유용한 양을 넘어 저장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활동력이 없는 금속의 초과분은 비생산적인 자본이고, 비생산적인 자본은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없다.

절대 우위

우리가 우리의 금 및 은 적립금을 보존할 것을 기대하여 수입을 제한할 때, 그것은 국내 소비자들이 선택의 여지를 덜 가진다는 것, 즉 그들이 재화를 더 낮거나 더 쌀지 모르는 다양한 외국 생산자들로부터 사기보다 국내 생산자들로부터 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³⁶ 스미스는 계속한다. 이것은 정책을 값비싸고 비생산적이게 한

다. 직업들 사이의 분업에서와 같이, 국가들도 역시 자기들이 가장 잘 하는 것을 하고 자기들의 잉여를 교환해야 한다. 이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절대 우위*(absolute advantage)라고 부르는 원리의 초기 해석인데, 스미스는 생생한 예를 가지고 그 주장을 보증한다.

온실, 온상, 그리고 온벽(hotwall · 과일의 성장과 원숙을 촉진하기 위한 난방 송기관(送氣管)들이 제공되는 벽)을 써서,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좋은 포도들을 재배할 수 있고, 적어도 똑같이 좋은 것을 외국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의 대략 30배에 그것들로부터 아주 좋은 포도주도 만들 수 있다. 그저 스코틀랜드에서 보르도 산 붉은 포도주(claret)와 부르고뉴 산 포도주(burgundy)를 만드는 것을 장려한답시고, 모든 외국 포도주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법률인가?³⁷

그러한 개입주의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값비싸다. 그것은 또한 부패하기도 하다.

사인들을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의 자본들을 고용해야 하는지 지휘하려고 하는 정치가는 아주 불필요한 관심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36 상계서, 권 IV, 제2장.

37 상계서, 권 IV, 제2장, p. 458, 문단 15.

하여간 어떤 지방 의회나 의회에도 안전하게 위탁될 수 없을 권한 그리고 어디에서도 자신을 그것을 행사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어리석음과 주제넘음을 가진 사람의 수중에 있는 만큼 위험하지 않을 권한을 쥐기도 할 것이다.³⁸

관세와 보조금

만약 일시적인 관세로 다른 국가들이 자기들의 관세를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을 찬성할 논거가 있을지 모른다고, 스미스는 인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은 무의미하거나 해롭고, 우리는 그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의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 포도주와 맥주에 대한 영국 관세들은 그것들이 명정(酤稅)을 줄인다는 근거로 변호된다. 그러나 스미스는, 술이 때때로 남용될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양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여전히 더 낫다고 되받는다. 그는 또한 포르투갈이 영국 제품들의 더 나은 고객이라는 논거로 관세가 프랑스에 비해 포르투갈에 특혜를 준다고도 언급한다. ‘따라서 줄게 소매상인들의 은밀한 술책이 대제국의 운영을 위한 정치적 금언으로 격상된다.’³⁹고 그는 불평한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무역 역조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에게 말한다. 어느 나라가 자기가 소비하는 것 이상의

38 상계서, 권 IV, 제2장, p. 456, 문단 10.

39 상계서, 권 IV, 제3장, 제2부, p. 493, 문단 c8.

로 생산하고 있는 한, 그 나라는 저축하고 있고 자기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한 나라는 여전히 자기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잉여를 생산하고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다.

‘관세 환급(drawbacks)’(수출업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과 ‘장려금(bounties)’(보조금)을 포함한, 기타 무역 개입들에 관한 스미스의 개관은⁴⁰ 자기 시대의 흥미로운 순간 촬영 사진을 제공하는데, 이따금씩 효과적인 보석이 있다. 예를 들면,

날 혹은 훈제되지 않은 청어 어업에 대한 장려금은 용적
톤수 장려금이고, 배의 적재량에 비례하지, 어업에서의 배
의 근면이나 성공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스럽게
도 배들이, 물고기가 아니라, 장려금을 잡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장비를 갖추는 것이 너무 흔해졌다.⁴¹

식민지 무역 제한

《국부론》은 아메리카의 끓어오르는 불만이 노골적인 반란으로 전환된 그저 몇 달 전에 출판되었다. 식민지들에 관한 스미스의 장(章)은⁴² 아메리카 사람들에 대한 그의 동정을 드러내는데, 주로 그들의 무역을 해쳤던(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국에 도움이 되지도 않

40 상계서, 권 IV, 제4장과 제5장.

41 상계서, 권 IV, 제5장, p. 520, 문단 32.

42 상계서, 권 IV, 제7장.

있던) 중상주의 제한들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세입에 대한 아메리카의 공헌이, 정의(正義)의 문제로서, 그것에게 의회에 더 크게 대표될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그가 느끼기 때문이다.

식민지들의 기원들을 추적할 때, 스미스는 식민지들이 보통 금이나 은을 발견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수립된다고 암시하는데, 물론 금이나 은은 중상주의자들이 부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큰 자산은 토지다. 그것은 풍부하고 값싸며, 그것의 잠재적인 수확을 실현하는 데는 많은 노동이 요구된다. 그것은 노동을 비싸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의 노동은 사실상 아주 생산적이어서 노동이 여전히 입수 가능하다. 참으로 아메리카는 아주 기름지고 풍요로워서 심지어 영국의 세금과 무역 제한도 (아직) 그것을 파멸시키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아메리카가 오직 본국하고만 무역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정책은 영국의 자본과 기업을 더욱 생산적인 용도들에서 멀리 끌어당겼고, 자기의 번영을 아메리카의 번영과 함께 떨어뜨렸으며, 양쪽 다에서 더 느린 자본 축적과 그러므로 더 낮은 미래 소득을 초래했다. 그가 말하기를, 영국은 아메리카를 ‘고객들의 국민(a people of customers)’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 정책은 대신 그들을 농부들에서 정치가들로 전환시켰는데, 영국의 산업이 아주 많이 대서양 무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크다. 오직 무역—및 정치적—자유화만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지만, 영국의 투자가 아주 왜곡되어버려서 필요한 조정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아메리카에 대한 영국의 무역 제한들은, 생산자 이익들이 지배하

는, 중상주의 사고의 또 하나의 예다. 그러나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끝이자 목적이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익은, 오직 그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할지 모르는 한에서만, 돌보아야 한다.’⁴³

자유주의적 대안

스미스는 모든 가치가 토지와 농업에서 유래한다—읍 상인들과 ‘장객들(artificers)’은 이 부를 단지 재배열할 뿐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프랑스 중농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해 그들을 비판한다. 그는 읍민들이 사실상 생산적이라고 반박한다. 그들은 단지 자본을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것을 대체한다. 그들은 생산적인 일손들이지 비생산적인 일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농주의자들의 경제 철학을 더 나은 것들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들은 산출물과 화폐를 혼동하지 않고, 그들은 완전한 무역 자유를 그 산출물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간주한다.

실사 자유가 결코 완전하지 않더라도, 시장 경제는 생존하기에 충분히 강하지만, 자유 경제 체제의 성공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라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스미스의 말로, ‘명백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 체제는 저절로 수립된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놔두어진다—그리고 그렇게 함

43 상계서, 권 IV, 제8장, p. 660, 문단 49.

으로써,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모든 사람의 이익들을 촉진한다. 어떠한 중앙 지휘도 필요하지 않다.

주권자는 어떤 인간 지혜나 지식도 결코 충분할 리 없을 의무, 사인들의 산업을 감독하고 그것을 사회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고용들로 돌리는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⁴⁴

스미스의 견해로 이것은 행운인데, 왜냐하면 자원들을 특정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든 체제는 ‘실제로 그것이 촉진하려고 의도하는 큰 목적을 파괴하기’⁴⁵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

스미스는 권 V에서 적합한 정부 역할을 탐구한다. 그는 정부와 관계(官界)에 비판적이지만, 자유방임의 옹호자가 아니다. 그는 자기가 서술한 시장 경제가 오직 그것의 규칙들이 준수될 때—재산이 안전하고 계약들이 존중될 때—에만 기능할 수 있고 자기의 편익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사법*(justice)의 유지와 *법의 지배*(법치 · rule of law)가 필수적이다.

방위(defence)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의 재산이 외세에 의해 도

44 상계서, 권 IV, 제9장, p. 687, 문단 51.

45 상계서, 권 IV, 제9장, p. 687, 문단 50.

독맞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은 만약 우리 자신의 이웃들이 그것을 훔친다면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것보다 더 멀리 가서, 공공사업을 제공하고 교육을 증진하는 데도 또한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한다.

방위

스미스는 수렵인-채집인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수렵인들은 당일을 위해 살고 재산을 거의 혹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중앙 당국에 대한 필요도 거의 없다. 그러나 농업 시대에는 사람들은 귀중한 재산(예를 들면, 농작물과 가축)을 축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선 사항이 된다. 분업 원리 아래에서, 전문적인 군대가 수립된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얻을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강제로 모든 사람에게 ‘무임승차자(free riders)’인 채로 남아 있기보다는 기부하게 시킨다. 그래서 방위는 정부의 기능이 되었다.

사법

똑같은 역사적 논거가 사법에도 적용된다. 사람들이 상업, 교환 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들의 이웃들에 대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민 정부

(civil government)를 수립한다.

부자들의 풍요는 가난한 사람들의 분개를 자극하는데, 이들은 종종 부자의 재산을 침해할 욕망에 의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시기심에 의해 자극되기도 한다. 수년의, 혹은 어쩌면 연속적인 수세대의, 노동으로 얻는 귀중한 재산의 소유자가 단 하룻밤이라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것은 단지 문관 치안 판사의 보호 아래에서만이다.⁴⁶

만약 모든 사람이 독립적인 판사들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명백히 유용하다. 그러나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사법적 보호소(judicial shelter)를 지으려는 노력들은 힘, 지혜, 분별, 성숙, 부 그리고 지위와 같은 개인적인 자질들의 권위를 존경하는 타고난 인간 성향에 의해 부추겨진다.

바꿔 말하면, 시민 정부는 갈등의 결과이고 상업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결과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일반적으로 유용한 결과이지만, 결코 완전하지 않다.

시민 정부는, 그것이 재산의 안전을 위해 수립되는 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비해 부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또는 재산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비해 약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 수립된다.⁴⁷

46 상계서, 권 V, 제1장, 제2부, p. 710, 문단 c2.

47 상계서, 권 V, 제1장, 제2부, p. 715, 문단 12.

이렇게 불완전한 기초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도 역시 불완전하다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과세할 권력은 정부에게 막대한 자원들을 쌓아 올릴 수 있게 하지만, 정부는 사인이 할 만큼 효율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유인을 훨씬 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왕실 소유지들이 사유 토지가 되었을 때, 그것들은 몇 년 동안에 잘 개량되고 잘 경작될 것이다. . . . 국왕이 관세와 (국내) 소비세로부터 얻는 수입은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수입 및 소비와 함께 증가할 것이다.⁴⁸

이러한 유인 결여는 고쳐져야 한다. ‘공공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보상이 그것들이 수행되는 결과로서 생길 때보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근면에 비례할 때보다, 결코 더 잘 수행되지 않는다.’⁴⁹

공공사업과 제도

스미스의 세 번째 정부 의무는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에게도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는 일정 공공사업들과 일정 공공 제도들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⁵⁰이다.

48 상계서, 권 V, 제2장, 제1부, p. 824, 문단 a18.

49 상계서, 권 V, 제1장, 제2부, p. 719, 문단 20.

50 상계서, 권 IV, 제1장, 제3부, p. 723, 문단 c1.

이것들은 상업을 촉진하는 *기간 시설 사업들*(infrastructure projects)과 사람들을 사회 및 경제 질서의 건설적인 부분이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education)이다.

공공사업

번영은 상업을 필요로 하고 상업은 도로, 다리 그리고 항구와 같은 기간 시설을 필요로 한다. 이것들 중 약간은 자기의 비용을 결코 갚을 수 없고, 그것들을 건설하는 데 조세 자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스미스는 믿는다. 그러나 비용의 적어도 일부는 전 국가에 대한 세금으로보다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행료로 벌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주요 편익이 지방적인데 비용이 통행료로 벌충될 수 없다면, *지방*(local)세가 최선이다. 예를 들면, 런던의 포장과 가로등에 대해서 런던 납세자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스미스는 또한 사람들에게 ‘미개한(barbarous)’ 국가들과 무역을 시작하도록 장려할 공공 조차지(public concessions)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 도움은 일반 납세자로부터의 보조금으로보다는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이) 일시적인 지방 독점들의 형태로 주어져야 한다.

《국부론》은 이 지점까지 정부들이 국민들의 ‘자본들을 지휘하는 것’에 관한 광범위한 비난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 지출 제안들은 기껏해야 기이한 것 같다. 상업은, 그것이 정의의 규칙들을 필요로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확실히 기간 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

러나 도로, 다리 그리고 항구가 상업적으로 건설되어서 그 비용이 전적으로 그것들의 사용자에게 대한 요금으로 벌충되어서는 왜 안 되는지 명백하지 않다. 심지어 포장과 가로등조차도 지방 기업들에 의해 설치되고 비용이 지불될지 모르는데, 이 기업들은 그 결과로서 거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통상로들을 개설할 가치가 있다면, 왜 정부가 연루될 필요가 있는가?

아마도 우리는 스미스를 너그럽이 봐줄 수 있을 것인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새로운 무역 모험사업들(trade ventures)을 위한 자금과 필수적인 기간 시설을 부설(敷設)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할 훨씬 더 광범위한 재정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들에서다. 우리는 또한 도로, 다리 그리고 기타 시설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지급 금액을 징수하는 더 나은 기술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정부 재원 조달과 주도권은 모든 사람이 필수적이라고 동의하는 일정한 일들을 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던 것 같다.

젊은이들의 교육

스미스는 기본 교육(basic education)의 증진을 기간 시설—상업이 번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그의 분석과 처방은 그의 일반적인 분석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그의 출발점은 분업이, 그것의 모든 편익들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결과들을 가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반복적인 작업들에 매일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사람들의 견해와 관심을

좁힌다.

자기의 전 생활을 소수의 단순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쓰고 그것들의 효과들도 아마 항상 같거나 아주 거의 같은 사람은 일찍이 발생한 적이 없는 난점들을 제거할 방안을 찾아내는 데서 자기의 이해력을 발휘하거나 자기의 창조력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⁵¹

마르크스는 후에 그것을 ‘소외(alienation)’라 부를 것인데, 스미스는 그것을 고치는 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교육은 가장 많이 고생하는 노동 빈곤층에 집중하여야 한다(제조업자들과 상인들은 더욱 자극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상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읽고, 쓰고,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기하와 역학도 또한 유용하다.

‘대중(public)’은—스미스가 커콜디에서 다녔던 지방 정부 재정 지원 학교와 같은—학교들을 설립함으로써 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학교 건물들의 대금을 치를지 모르지만, 국가는 선생들의 임금 전체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선생들이 학생들로부터의 수업료에 의존한다면, 그들의 성과는 그만큼 더 뚜렷할 것이다. 스미스는 짜증을 내며 자기의 옥스퍼드 시절을 상기하는데, 거기서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기부금은 부득이 선생들의

51 상계서, 권 V, 제1장, 제3부, p. 782, 문단 f50.

근면의 필요성을 다소간 감소시켰다. 그들의 생존은 자기들의 특정 지적 직업에서의 성공 및 평판과는 대체적으로 관계가 없다.’⁵²

학생들이 전 금액을 지불하는 펜싱이나 댄싱 같은 기능들을 위한 사립학교들에 그가 높은 호감을 표현할지라도, 그는 정부가 얼마나 많이 이 기본 교육에 지불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러나 정부 기업들에 관한 스미스의 경고를 염두에 두고서, 현대 독자는 가난한 학생들을 보조하는 것이 그들의 학교들을 보조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은지 질문할지 모른다.

모든 연령의 교육

스미스는 또한 정부가 성인 및 종교 교육을 증진하는 역할도 인정한다. 성직자들은 10분의 1 교구세가 자기들의 봉급을 지불할 때 게으르게 되지만, 성장하는 읍들의 유혹물들로 종교 및 도덕 교육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부가 과학, 철학 그리고 예술의 연구를 장려하는 적어도 약간의 역할—다시, 비록 구체적이지 않지만—을 옹호한다. 그리고 정부가 ‘문둥병이나 어떤 다른 불쾌하고 거슬리는 질병’의 만연을 막아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정부가 비겁의 ‘정신적 훼손(mental mutilation)’과 싸우는 데 ‘진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⁵³

52 상계서, 권 V, 제1장, 제3부, 제2조목, p. 760, 문단 f5.

53 상계서, 권 V, 제1장, 제3부, 제2조목, p. 787-8, 문단 f60.

주권자

과세로 지불되어야 하는 마지막 항목은 ‘주권자의 위엄(dignity of the sovereign)’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군주제와 형사 사법의 비용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많은 민사(civil) 사법은 전쟁 중인 주역들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요 편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과세의 원칙

적어도 약간의 조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증한 후에, 스미스는 그것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최선인가의 질문에 착수한다. 여기서 그는 더욱 낮이고 안전한 입장에 있다. 그는 ‘한 정부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는 것보다 더 빨리 다른 정부에 관해 들어서 아는 기술은 없다,’⁵⁴고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약간의 억제제가 필요한데, 스미스는 네 가지 유명한 과세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국민들은 자기들이 국가 보호의 보장 아래 누리는 소득에 비례하여 기부해야 한다. 둘째, 세금은 세무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결정들에 의존하기보다 확실해야 한다. 셋째, 세금은 납부하기가 불편해서는 안 된다. 넷째, 세금은 최소의 부차 효과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징수하는 데 돈이 적게 들어야 한다. 그것은 산업과 기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밀수와 같은 탈

54 상계서, 권 V, 제2장, 제2부, 제1조목과 제2조목에 대한 부록, p. 861, 문단 h12.

세를 조장할 정도로 번거로워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징세자들의 빈번한 방문들과 불쾌한 조사’⁵⁵를 필요로 해서도 안 된다.

과세는 정부들이 바르게 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스미스는 말한다. 예를 들면, 회사들에 대한 세금은 현명하지 못한데, 왜냐하면—그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하듯이—우리의 소득이 달려 있는 자본은 대단히 이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스톡의 소유자는 당연히 세계의 시민이지, 반드시 어떤 특정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부담스러운 세금에 사정(査定)되기 위해 성가신 심문에 노출되는 국가를 버리고 떠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거나 자기의 재산을 더욱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을 어떤 다른 국가로 자기의 스톡을 옮길 것이다.⁵⁶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스미스의 계획들에는 비일관성이 있다. 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을 반대하지만, (가금(家禽)처럼, 우리가 오늘날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물건들도 포함해서) 사치품들에 대한 세금을 지지한다. 그는 국민들이 자기들의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자들이 ‘그 비례 이상의 어떤 것 (something more than in that proportion)’을 납부하기를 원한다.

55 상계서, 권 V, 제2장, 제2부, p. 827, 문단 b6.

56 상계서, 권 V, 제2장, 제2부, 제2조목, pp. 848-9, 문단 f8.

공공 부채

정부의 역할에 관한 스미스의 견해들의 약간이 자기의 일반 원칙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 그의 정책 처방이 자기의 통상의 정밀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된 것 같지 않지만, 그는 더욱 자기의 옛날 스타일과 같은 어떤 것으로 끝낸다. 정부들은 자기들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언급한다. 그래서 그는 큰 국가 부채가 특별히 해롭다는 고별 경고를 가지고⁵⁷ 《국부론》을 끝맺는다.

부채를 발행함으로써, 정부들은 자본을 투자와 성장에서 멀리 끌어당겨서 그것을—정부 활동들의 형태로—현재 소비 쪽으로 조종하는데, 이것은 성장이 필연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덧붙여서, 정부 차입으로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할 필요 없이 더 많은 기능들을 떠맡고 자기들 자신의 권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하여간 상황을 피하는 방법들을 찾아낸다. 이런 이유들로, 국가 부채는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자애로운 이전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고, 그러므로 번영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다.

오늘날의 《국부론》

물론 스미스의 세계는, 산업 혁명이 모든 것을 바꾸기 전이어서, 우리들의 것과 아주 달랐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소유자들’이 결코

57 상계서, 권 V, 제3장.

자기들을 계속 집중해 있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의 대들보인 주식회사들에 회의적이었다.⁵⁸ 아마도 그가 옳았을 것이다. 그는 노동조합 권력의 상승, 산업공해의 문제들, 법정 불환 화폐 인플레이션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학자들을 괴롭히는 그 밖에 많은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일하고, 거래하고, 저축하고, 투자할 자유와 안전이, 지휘하는 당국의 필요 없이, 어떻게 우리의 번영을 증진시키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부론》은 세계가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최악의 경제 문제들에 대한 강력한 집합의 해결책들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긴다. 자유 경제는 새로운 문제들의 충격을 잘 견딜 수 있고 미래가 가져오는 어떤 것이든 잘 처리할 수 있는 적응성 있고 신축성 있는 체제이다.

58 상계서, 권 V, 제1장, 제2부, 제1조목, p. 744, 문단 e22.

4 《도덕 감정론》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은 애덤 스미스가 35살이던 1759년에 출판되었고, 글래스고 대학교에서의 그의 윤리학 강좌에서 나왔다. 그것은 읽기 쉬운 책이 아니다—스미스는 또한 수사(Rhetoric)와 문체(Literary Style)도 강의했는데, 그 언어는 오늘날의 철학자들의 딱 부러지는 과학적 산문보다 더 화려하다. 참으로, 스미스의 친구 에드먼드 버크는 그것을 ‘저술이라기보다는 회화’라고 서술했다. 그것은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다.

책의 주요 주제

그렇지만 《도덕 감정론》은 진정한 과학적 돌파구였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 관념들과 행동들이 사회적 동물로서의 우리의 바로 그 본성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 사회 심리가 도덕적 행동에 대해 이성보다 더 나은 안내자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회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분별(prudence)**과 **정의(justice)**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식별하고, 사회가 번창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자선적인(beneficent)** 행동들을 설명한다.

자기 이익과 동정

개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돌보려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저 분별일 뿐이다. 그렇지만 *사회적*(social) 동물로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타고난 동정(sympathy)도 부여받았다. (오늘날 이 단어는 다른 의미들을 얻었고, *공감*(empathy)이 그 개념을 더 잘 표현할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하거나 행복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비록 덜 강렬하긴 하지만—그들에게 동정심을 품는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이 특별히 강렬할 때, 공감은 그들을 부추겨 자기들이 우리의 덜 강렬한 반응과 일치하도록 자기들의 감정을 억제하게 한다. 점차, 우리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 각각은 무엇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알게 된다. 도덕은 우리의 사회적 본성에서 생긴다.

정의와 자선

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다. 비록 우리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아내야 한다. 그것은 사회의 생존을 위한 필수 최저치다. 만약 사람들이 더 멀리 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면—자선—우리는 그것을 환영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정의를 요구하듯이 *요구*(demand)할 수는 없다.

덕

분별, 정의 그리고 자선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상은, 현실적이거나 가상적이거나, 어떤 불편부당한 사람—스미스가 *불편부당한 구경꾼*(impartial spectator)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제*(self-command)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진정한 덕이 놓여 있다.

덕의 기초로서의 타고난 공감

스미스의 시대의 철학자들은 행동을 옳거나 그르게 만드는 것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스미스는 우리의 도덕성이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우리에게 내장된, 타고난 어떤 것이다. 우리 각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혹은 공감)을 느끼는데,¹ 이것은 즉각적이고, 진실하고, 자비롭고, 타고난 것이다. 우리의 상상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맞으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움찔한다. 우리가 느슨해진 로프 위의 곡예사를 응시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몸을 비튼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행복하거나 슬픈 것을 볼 때, 우리도 또한 행복하거나 슬프게 느낀다.

비슷하게, 사람들이 우리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공감한다. 사실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의견을

1 《도덕 감정론》, 제1부, 제1절, 제1장, p. 9, 문단 1.

함께 나누는 것에서 진실한 기쁨을 느낀다.²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거나 그들의 행동을 찬성하지 않을 때, 그것은 서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감정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일으킨 상황이다. 우리가 성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 분노를 함께 나누기 보다는 그것의 잠재적인 희생자들을 더 동정할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그 사건의 사실들을 들어서 알았고 그 분노가 얼마나 정당화되는지에 관해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렸을 때까지는 그렇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사건들에 대해 과잉 반응했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들은 우리의 공감을 잃는다.

불일치와 자제

단지 구경꾼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사나움—예를 들면, 부당한 취급을 당한 어떤 사람의 격렬한 분노나 최근에 가족과 사별한 어떤 사람의 깊은 슬픔—을 충분히 공유할 수 없다고, 스미스는 언급한다. 우리의 공감 감정은, 비록 진실하다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더 약하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경꾼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감정의 구경꾼이다. 이 사례들에서와 같이, 그들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곤란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는 그들을 부추겨서 그들의 원래 감정의 격렬함을 억제하게 할 것인데, 그 감정 자체

2 상계서, 제1부, 제1절, 제2장.

를 그들의 곤경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더욱 일치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인생을 나아감에 따라, 우리는 이 자제를 체득한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사물을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는 분노나 슬픔이나 기타 감정들의 과잉이 그들을 괴롭힌다는 점을 체득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일치하도록 억제하려고 한다. 사실상, 우리는 그것을 어떤 전형적인, 공평한 사람도—불편부당한 구경꾼이라고 스미스는 말한다—우리에 공감할 지점으로까지 완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불편부당한 구경꾼이 찬성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느낀다. 불편부당한 구경꾼은 현실적이거나 단지 가상의일 뿐일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를 안내한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점차 행동 규범들의 체계—도덕—를 쌓아 올린다. 이것은 사회가 변창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것의 뿌리에 공감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동정하고 우리 자신들을 별로 동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애착을 억제하고 우리의 자비로운 애착을 만족시키는 것은, 인간성의 완성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류 사이에 감정과 열정의 전(全) 우아함과 예의 바름이 존재하는 감정과 열정의 조화를 낳을 수 있다.³

보상, 처벌 그리고 사회

스미스는 배고픔, 사랑, 친절 그리고 분개와 같은 다양한 감정들의 적절성을 고찰하고⁴ 그 다음 어떤 행동이 보상이나 처벌을 받을 만한지의 질문에 착수한다.

이것에 관한 판단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결과를 동기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부터 편익을 얻는다면, 그 행위자가 우리가 동의하는 동기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수혜자의 감사에 충분히 공감할 수 없다. 또한 해로운 행동이 우리가 찬성하지 않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해로운 행동에 대한 어떤 사람의 분개에 공감할 수도 없다.⁵ 오직 도움이 되는 행동이 긍정적 동기에서 나올 때만 우리는 그것이 보상받을 만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오직 해로운 행동이 부정적 동기에서 나올 때만 우리는 그것이 처벌받을 만하다고 믿는다.⁶

처벌과 보상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회에 이로운 행위들을 찬성하고 보상하며,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들에 찬성하지 않고 처벌한다. 사회의 바로 그 존재는 부당하고 까닭 없는 악의가 적절한 처벌에 의해 억제되어야 할 것과, 결과적으로, 그 처벌을 과하는 것이 적합하고 칭찬할 만한 행동으로서 간주

3 상계서, 제1부, 제1절, 제5장, p. 25, 문단 5.

4 상계서, 제1부, 제2절.

5 상계서, 제2부, 제1절, 제3장과 제4장.

6 상계서, 제2부, 제1절, 제4장.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⁷

이 과정은 본능적이다. 우리는 개인의 행동들이 어떻게 사회의 편익이나 손해를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모를지 모르고, 우리의 이성은 불확실한 안내자다. 그러나 자연이나 신은 우리의 종과 우리의 사회의 존재의 계속을 촉진하는 것같이 사실상 정말 보이는 욕구와 혐오를 우리에게 갖추어 주었다. 참으로, 만약 우리가 다른 식으로 행동한다면, 사회는 부서질 것이고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는 이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소수의 경우들과, 우리의 행동들이 어떻게 잘 기능하는 사회적 질서를 낳는데 이바지하는지, 설사 그러한 결과가 우리가 행동할 때의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지, 그가 설명하는 훨씬 더 많은 경우들에 관해,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의 예이다. 예를 들면, 시계의 톱니바퀴들은 함께 움직여 시간을 보여준다고 스미스는 관찰한다. 그러나 그 톱니바퀴들은 그것이 시계 제작자의 의도라는 것을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능적인 행동들이 움직여 사회를 진전시킬 때, 우리는 우쭐대며 그것을 우리 자신의 이성에 돌릴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는 그것을 자연이나 신에 돌려야 한다.⁸

(그가 인간 행동에 의해서 생기지 인간 설계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닌 기능하는 사회 질서의 이런 현상을 논할 때, 스미스는 *신*(God), *자연*(Nature), 혹은 *자연의 창조자*(the Author of Nature)

7 상계서, 제2부, 제1절, 제5장, p. 77, 문단 10.

8 상계서 제2부, 제2절, 제3장.

라는 용어들을 거의 호환해서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들을 통하여, 부지불식간에 사회적 조화를 창출하는지에 관한 그의 설명은 신학적 접근법이 아니라 체제 접근법(systems approach)이다. 그것은 신의 개입을 전제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자연—혹은 우리가 오늘날 말할지 모르듯이, 진화(evolution)—은 동일한 결과를 더할 나위 없이 잘 낳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를 동기의 질문으로 되돌린다.⁹ 해를 끼치려고 의도된 행동들이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할지 모른다. 반면에 다른 행동들은 심지어 그것이 전혀 의도되지 않은 곳에서조차 실제 해를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기를 처벌해야 할까, 결과를 처벌해야 할까? 스미스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없다고 대답한다. 설사 우리가 오직 나쁜 동기(motives)만 처벌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의심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자연은 우리를 더욱 안정적인 해결책으로 이끈다. 우리는 오직 악을 낳거나 낳으려고 의도된 행동(actions)만 처벌한다.

기초로서의 정의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개개 구성원들이 서로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규칙들이 존재해야 한다. 스미스가 논평하듯이,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사회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직 그들이 서로 약탈하고 살해하는 것을 삼가는 한 그렇다.¹⁰ 이것은 우리가

⁹ 상계서, 제2부, 제3절, 제1장과 제2장.

정의(justice)라고 부르는 규칙들이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거나, 선행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몰인정하다거나 은혜를 모른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선행을 하도록(do good)* 강제하기 위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제적이거나 의도된 해(害 · harm)의 행위들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직 정의의 규칙들을 준수하게만 강제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¹

정의는 해를 막는 것에 관한 것이지, 선을 극대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자신들에게 더 크게 유용할지 모른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¹²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그 밖의 모든 사람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로 부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약탈들에 직면할 것이다. 정의는 사회가 어떻게 자신을 해로부터 지키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주 필수적이어서 자연은 우리에게 그것을 유지할 가장 강력한 본능을 주었다. 불의에 대한 우리의 불찬성은 아주 강력해서 그것은 그것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 깊은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을 자

10 상계서, 제2부, 제2절, 제3장, p. 86, 문단 3.

11 상계서, 제2부, 제2절, 제1장.

12 상계서, 제2부, 제2절, 제2장.

극한다.

자기비판과 양심

사실상, 자연은 우리에게 처벌보다 더욱더 즉각적인 어떤 것, 즉 우리 자신의 자기비판(self-criticism)을 주었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불편부당한 구경꾼이어서, 우리 자신을 행위자(agent)와 판사(judge)로 나눈다.¹³ 그리고 이 내부 판사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칭찬만이 아닌 그 이상을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정말로 당연하다고 우리가 느낄 때에만 만족한다.¹⁴

이러한 양심(conscience)의 불꽃은 강력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에 너무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서 너무 멀게 되는 것을 막는다. 유명한 예에서, 만약 대지진이 중국 전체를 먹어버린다면 유럽에 사는 어느 사람은 약간의 고통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떤 사적인 불행에 의해 야기되는 고통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그는 관찰한다.

만약 그가 내일 자기 새끼손가락을 잃게 되어 있다면, 그

13 상계서, 제3부, 제1장.

14 상계서, 제3부, 제2장.

는 오늘밤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결코 보지 않았다면, 그는 1억의 자기 형제들의 파멸에 아주 완전히 마음 놓고 코를 골 것이고, 그 엄청난 군중의 파멸은 명백히 자기 자신의 이 하찮은 불행보다 자기에게 관심이 덜한 대상인 것 같다.¹⁵

그렇지만 실제로 모든 개인들은 똑같이 중요하다. 양심은 자연이 우리에게 그것을 환기시키는 방식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구하기 위해서 수억의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킬까? 물론 아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양심은 우리에게 시각을 준다. 그것은 우리의 자기 집착(self-obsession)을 억제하고 우리가 단지 우리의 개인적 이득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내키지 않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천한 욕구에 대한 자제를 준다.¹⁶

도덕 규칙

이 과정은 우리가 규칙들을 만들고 따르려는 타고난 본능에 의해 지원된다.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내부 판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지 않게 결심하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행동할 때, 우리는 그들을 모방하려고 결심한다. 셀 수

15 상계서, 제3부, 제3장, pp. 136-7, 문단 4.

16 상계서, 제3부, 제3장.

없을 정도로 많은 행동들에 관해 그러한 판단들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행위 규칙들을 공식화한다.¹⁷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상황을 새롭게 생각해 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안내할 도덕적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 당시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의, 정직 그리고 예의바름의 원칙들에 계속 충실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무감(sense of duty)’을 일으킨다.

이 항상성(恒常性 · constancy)은 사회 질서에 이롭다. 우리의 양심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결국, 확실히 그러나 의도하지 않고,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게 된다.¹⁸ 인간 법률들도, 자체의 처벌과 보상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목표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양심만큼 그리고 자연에 의해 잘 처리되는 도덕의 규칙들만큼 일관성 있거나, 즉각적이거나, 효과적일 수 없다.

스미스는 도덕 규칙들이 시간과 장소에 걸쳐 정말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자기들이 익숙한 것에 따라, 상이한 문화들이 상이한 미(美)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또한 ‘행위의 미(behavior of conduct)’에 관해서도 상이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¹⁹ 예를 들면, 다른 결혼 관습과 성 행위 규범이 있고 환대나 예의바름에 관한 다른 기준들이 있다. 그러나 유행이나 관습의 그러한 차이점들은 불가피하게 주변적이라고 그는 강력히 주장한다.

17 상계서, 제3부, 제4장, p. 159, 문단 7-8.

18 상계서, 제3부, 제5장.

19 상계서, 제5부, 제1장, 그리고 제2장, p. 200, 문단 1.

만약 자연의 근본적인 원칙들이 계속해서 준수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계속해서 생존할 수 없다.

부에 대한 태도

우리의 도덕적 판단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부가 선을 위한 것만은 아닌, 또 하나의 요소는 부(富 · wealth)이다. 이 주제에 관한 스미스의 긴 의견은 (카를 마르크스를 따라) 그를 물질적 욕심의 옹호자로 상상하는 순진한 비판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옴에 틀림없다.

돈이 살 수 있는 의식주의 편의는 실제로 아주 사소하다고 그는 강력히 주장한다. 아름다운 외투는 거친 외투보다 더 비바람에 견디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그 밖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초라한 집에 사는 노동자는 대궁전의 군주보다 더 폭 잠잔다. 부는 우리를 두려움, 슬픔 혹은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부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행복함에 틀림없다고 믿는다. 참으로, 우리는 그들의 행운에 공감적 즐거움을 느끼고, 그들의 생활들과 사건들은 우리의 흥미를 사로잡는다. 물론, 공공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매우 기분 좋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부의 주요 편익은 그것이 살 수 있는 사소한 즐거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발생시키는 아첨하는 관심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허영인데, 왜냐하면 대중의 관심은 부나 지위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가치보다 그것들의 소유에 더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얻을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부자들의 ‘악덕과 어리석음(vice and folly)’을 눈감아 주고 그들의 공적(功績) 이상으로 그들에게 아첨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부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모든 가짜 칭찬을 진실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심지어 그들이 실제로 그것의 어느 것도 받을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그렇다.

자기 개선

그렇지만 부의 추구는 다른 편익들을 정말 가져온다.²⁰ 사람들이 부자들의 대저택들이나 멋진 대형 4륜 마차들을 볼 때, 그들은 이러한 안락하고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생활을 부러워한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똑같은 것을 달성하기 위해 한평생의 불편과 힘든 일에 헌신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의 즐거움들이라고 추정되는 것은—비록 사실상 환상일지라도—우리를 우리의 물질적 세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도록 몰아가고 우리를 또한 우리의 지적 및 예술적 생활에서도 막대한 개선으로 이끈다.

인류의 산업을 일으키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 두는 것은 이 기만(deception)이다. 처음 그들을 부추겨 땅을 경

20 상계서, 제4부, 제1장.

작하고, 집을 짓고, 도시와 국가를 세우고, 모든 과학들과 예술들을 고안하고 개선하게 한 것은, 인간 생활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지구의 전 얼굴을 완전히 바꾸었고, 자연의 원시림을 마음에 들고 기름진 평야로 만들었으며, 길 없고 불모인 대양을 새로운 생계 기금(fund of subsistence)으로 그리고 지구의 상이한 국가들로의 통신의 큰 간선 도로로 만들었던 것은 이것이다.²¹

그러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거의 더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더욱 귀중하거나 마음에 들거나 세련된 것들을 골라잡을 뿐이다. 그리고 자기들에 시중드는 모든 사람들이나 자기들의 모든 고운 자질구레한 장신구들을 만드는 데 산업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얻은 부는 전 공동체에 걸쳐 퍼져 나간다. 참으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만약 지구가 그 거주자들 사이에 균등한 구획들로 나누어졌더라면 이루어졌을 것과 거의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된다.’²²

덕에 관하여

도덕의 기원과 본질을 식별한 후에, 스미스는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덕 감정론》을 끝맺는다. 그러

21 상계서, 제4부, 제1장, pp. 183-4, 문단 10.

22 상계서, 제4부, 제1장, pp. 184-5, 문단 10.

한 사람은 *분별*, *정의* 그리고 *자선*의 자질들을 체화할 것이라고 그는 암시한다. 네 번째—*자제*—도 역시 필수적인데, 하기야 그것이 항상 선을 위한 힘인 것은 아니다.

*분별*은 개인의 관심으로 돌려진다. 그것은 개인의 지나친 행위를 완화하는데, 그 자체로 사회를 위해 중요하다. 그것은 비록 특별히 사랑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존경할 만하다.²³ *정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해를 제한하는 데 돌려진다. 그것은 사회생활의 계속에 필수적이다. *자선*은 우리를 부추겨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그 사회생활을 증진한다.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항상 고맙게 여겨진다. 그리고 *자제*는 우리의 걱정을 누그러뜨린다. (두려움이 우리의 분노를 억제하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안전해질 때 분노는 그저 다시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자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때, 그것은 진정으로 줄어든다.²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에, 그리고 오직 그 다음에만 친구들과 더 먼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²⁵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 자신의 나라를 더 고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²⁶ 그러나 진정한 자선은 경계를 모른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인류가 어떤 개인보다 더 중요

23 상계서, 제6부, 제1절, 제1장.

24 상계서, 제6부, 결론, p. 263, 문단 3.

25 상계서, 제6부, 제1절, 제1장.

26 상계서, 제6부, 제1절, 제2장.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은 ‘우주의 더 큰 이익을 위해’²⁷ 개인적인 희생을 기꺼이 할 것이다.

유덕한 사회의 헌법

자연은 사실상 개인들에게 자기희생의 행위를 정말 촉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자제를 찬양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의뿐만 아니라 나쁜 목적을 위해서도 몸을 바칠 수 있다. 영웅의 자제는 영광자의 완고한 결단으로 변할 수 있다.

인류에 대한 애정은 우리의 국가에 대한 애정과 같지 않다.²⁸ 후자는 우리의 동포가 행복해야 한다는 욕망뿐만 아니라 나라의 헌법과 조직의 존중과 존경도 포함한다. 보통 그 두 가지는 일치한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의 시대에는, 그것들은 충돌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치인들은 전면적인 개혁 계획들을 제안하는데 호소할지 모른다. 그들은 기존 제도들의 타도를 제안하는데, 그 옛날 제도들이 전달했던 편익들과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그들은 대신 ‘합리적인(rational)’ 대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본성과 불화한다.

체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만에 매우 정통한 경향이 있고, 종종 자기 자신의 이상적인 통치 계획의 아름다

27 상계서, 제6부, 제3절 제3장, p. 235, 문단 3.

28 상계서, 제6부, 제2절 제2장, p. 229, 문단 4.

움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아주 반해서 그는 그것의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가장 작은 이탈도 참을 수 없다. . . . 그는 손이 장기관 위에 상이한 말들을 배열하는 것만큼 아주 쉽게 자기가 위대한 사회의 상이한 구성원들을 배열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위대한 장기관에서 모든 단일의 말이, 입법부가 그것에 일으키기 위해 선택할지 모르는 것과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의 운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²⁹

자유와 본성은 광신자들과 몽상가들의 거들먹거리는 이성보다 조화롭고 기능하는 사회의 창조에 대한 더 확실한 안내자다.

29 상계서, 제6부, 제2절 제2장, pp. 233-4, 문단 17.

5 스미스의 강의와 기타 저작

스미스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미발표 논문들의 대부분을 태울 것을 주문했다(필자들이 자기들의 미완성 노트들에 의거하기보다 자기들의 완성된 작품에 의거하여 판단되기를 원했던, 그 당시의 아주 정상적인 요구). 그래서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 외에는 문자로 된 그의 작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래도 존재하는 것은 스미스의 학식과 관심의 막대한 폭을 보여주는데, 이것들은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의 《사전(Dictionary)》의 한 논평, 유럽의 지적 추세에 관한 그리고 언어들의 기원에 관한 논문들, 회화·연극·음악 그리고 무용을 망라하는 예술들에 관한 에세이들, 영국과 이탈리아의 시에 관한 단평들, 고대 물리학과 철학의 역사에 관한 논문들, 그리고 《천문학의 역사(The History of Astronomy)》에 관한 70페이지 학위 논문이다.

운 좋게, 우리는 또한 그의 《수사와 순수 문학 강의(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res)》 그리고 《법학 강의(Lectures on Jurisprudence)》로부터 나온 약간의 그의 학생들의 노트들도 가지고 있다. 비록 이것들은 스미스의 문서로 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글래스고 대학교에서의 그의 지적인 발전에 대한 귀중한 통

찰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많은 문단들이 《국부론》에 다시 출현한다.

통일적인 주제

스미스가 이 다양한 강의들과 저작들에서 다루는 주제들의 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 그의 접근법에 관해 하나의 중요한 것을 드러낸다. 스미스는 경제학자나 도덕학자나 역사가나 문법학자라기보다 사회 심리학자이다. 그는 인간 마음이 어떻게 세계와 다른 인간들을 다루며 그것이 어떻게 이 관계들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창조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에게 과학은 현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인간 마음들이 어떻게 스스로 그 현실을 분석하고 배열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언어, 도덕 그리고 경제는 모두 하여간 마음들의 만남에서 생기는 유용한 사회 구조들이다. 법률과 정의는 인간들이 어떻게 평화로운 공존을 얻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의 설명들은 오늘날 우리가 진화적(evolutionary)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여간 서로 협력하여 이 더 큰 사회 제도들이 일반적인 편익을 위해 작동하게 하는 타고난 성향들을 자연은 우리에게 주었다. 다른 사람들과 교섭하거나 의사 전달하거나 사이 좋게 지내려는 우리의 사적인 시도들이 어떻게 일반적이고 이로운 경제, 언어 혹은 정의의 체제를 낳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그렇게 한다. 참으로, 만약 그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파괴적이라면, 사회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스미스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 개인의 행동들이 어떻게 전체에 연결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다.

스미스의 과학 철학

그러므로 《천문학의 역사》는—그것의 완전한 제목, 《철학적 탐구를 이끌고 지휘하는 원리: 천문학의 역사를 예시로(The Principles Which Lead and Direct Philosophical Enquiries: Illustrated by the History of Astronomy)》가 나타내듯이—별 관측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실제로 인간 마음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분류하고, 이해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과학적 이론화를 하게 되느냐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이론들이 어떻게 제안되고, 검증되며, 대체되는지를 보여주고, 아이작 뉴턴의 연구를 한 예로 사용하여, 무엇이 ‘좋은(good)’ 이론을 만드느냐를 계속해서 연구한다. 그것은 모두 놀랍도록 현대적이어서, 과학을—‘현실(reality)’에 관해서가 아니라 인간 심리와 해석에 관한—세계를 모형 구성하려는 시도로서 간주한다.

미지의 것에 대한 걱정

스미스는 우리가 낯익은 것들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새로운 것들이 출현할 때, 그것은 놀라운(surprise)이다.¹ 그것은 우리를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낯익은

세계에 들어맞는지에 대한 경의(wonder)로 채운다.² 어떤 것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느낌은 불안하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상상은, 그리고 우리의 추상과 분류 능력들은, 우리가 그 새로운 현상을 맥락에 넣는 것을 돕는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한 조각의 쇠가 자석에 끌리는 것을 보고서 놀란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은 어떤 힘이 그 돌[자석(磁石)] 둘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을 돕는다. 그것은 조잡한 이론이지만, 스미스는 그러한 이론들이 어떻게 제안되고, 검증되며, 개선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추측과 기각

그는 천문학의 역사를 실례로서 사용하여 이렇게 한다.³ 고대 천문학자들에게 설명을 필요로 하는 ‘놀라운 일’은 태양, 달 그리고 별들의 운행이었다. 하나의 제안은 하늘이 돛 형태의 지붕인데, 그것에 이 물체들이 부착되어 있고, 그것이 매일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행성들의 불규칙적인 운동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천구들이 있어서, 하나는 규칙적으로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행성들을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은 더욱 불규칙적으로 운행한다는 더욱 정교한 이론이 과감히 제시되

1 《천문학의 역사(The History of Astronomy)》, 제1절.

2 상계서, 제2절.

3 상계서, 제4절.

었다. 그러나 이 불규칙적인 운행 자체는 약간의 설명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상이한 방향들로 하나를 다른 것 안에서 회전시키는,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가정되—어 드디어 그것들의 총 72개가 상상되었다. 그저 난처하게도, ‘이 체계는 이제 한결같고 일관성 있게 만들려고 그것을 고안했던 상황들 그 자체만큼 복잡하고 복합적이게 되었다.’⁴

나중의 천문학자들은 행성들의 운행에 관한 더 간단한 설명을 찾았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친구들의 중심에 두는 체계를 제안했다. 이것은 행성들의 불규칙적인 운동을 설명하기 더 쉽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 해석에서는 지구도 또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천문학자들은—적어도 더 정확한 관찰들이 그것의 단점들을 드러냈을 때까지는—그것을 유용하게 여겼다.

그러나 다음에는 아이작 뉴턴이 어떻게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행성들이 그것들이 운행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운행하는지에 관한 간단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것은 중력의 영향이었다. 몇 개의 간단한 물리적 규칙들이 행성들의 타원 궤도와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 조화될 수 없었던 혜성과 같은 기타 현상들의 출현을 설명할 것이다. 그것은 간단하고 거의 우아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관찰된 사실들에 들어맞았다.

4 상계서, 제4절, 8, p. 59.

과학과 인간 이해

그렇다면 스미스에게는, 과학적 방법은 쉽게 인간 마음에 의지하는 방법들로 우주를 설명하는 과정, 그것의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원리들로 바꾸는 과정이다. 우주의 모형들은 제안되고, 검증되고, 부족함이 발견되고, 수정되고—그것들이 너무 뒤죽박죽이게 되거나 너무 많이 관찰과 상충되게 될 때—더욱 우아한 설명들을 지지하여 기각된다. 그것은 놀랄 정도로 현대적인 견해이다.

우리는 뒤죽박죽된 상이한 관찰들을 ‘몇 가지 공통 원리들’로 바꾸는 이론들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본다. 그 이유는 과학이 우리 자신의 정신적 조직이기 때문이다. 스미스에게는, 모든 과학적 모형들—그의 말로, ‘모든 철학적 체계들(all philosophical systems)’—은 ‘그저 상상력의 발명품일 뿐이다.’⁵

의사 전달의 심리학

《수사와 순수 문학 강의》에서도 역시, 스미스의 주제의 핵심은 사실상 인간 심리이고, 그것으로부터, 하나의 주요 사회 제도—의사 전달(communication)—을 전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동정적인 청중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의 전 메시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 하나씩 설명하라고, 스미스는 권고한다. 만약 당신이 적대적인 청중과 대면하면, 갑자기 당신의 논쟁적인 결론들

5 상계서, 제4절, 76, p. 105 (또한 제2절, 12, p. 46도 보라).

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그것들로 이끌어 가라.

강의들—오직 학생 노트의 형태로서만 존재한다—과 자기의 에세이, 《언어의 최초 형성에 관한 고찰(Considerations Concerning the First Formation of Languages)》에서, 스미스는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함으로써 언어를 이해하려고 한다. 문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스미스의 역사는 불가피하게 추측적이다. 그리고 그의 예들은 소수의 고대 및 근대 유럽 언어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진화적이다. 언어는, 인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성장하고, 그 발전의 도구가 된다고 그는 믿는다.

의사 전달과 인간 본성

언어가 인간 마음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본성에 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는 단언한다. 《천문학의 역사》에서 이미 관찰된, 우리의 범주화 능력을 예로 들어보자. 스미스는 초기의 제(諸)국민이 모든 것에 다른 이름들을 붙였을지 모른다고 암시한다. 그것은 엄청나게 성가시게 될 것이지만, 다행히도 인간 마음의 추상 능력이 구조한다. 우리는 상이한 것들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의 전 부류에 대해 공통의 단어—예를 들면, 나무(trees)—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색깔—초록색 나무(the green tree)—이나 관계—동굴 위의 나무(the tree above the cave)—와 같은 특질들을 규정

할 수 있다.⁶ 그러한 기법들은, 과학적 방법에 필수적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이해에도 마찬가지로 유용하다.

스미스가 주제에 대해 법의학적 기법을 적용하려는 결의는 《국부론》에서 《수사와 순수 문학 강의》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탐구들을 하나로 묶는다. 전자에서는, 탐구는 생산과 교환을 움직이는 인간 동기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그 구성 부분들로 분류하는 것이다. 후자에서는, 그것은 의사 전달의 배후에 있는 심리를 발견하고 그것의 구조(structure)와 양식(style)을 분석하는 것이다.

의사 전달의 과학

사실상, 양식은 스미스의 관심을 많이 차지한다. 좋은 양식은 간결하고, 적합하며, 정확하다고 그는 강력히 주장한다.⁷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필자의 열정을 전달해야 한다. 그것은 깔끔하고, 명백하며, 알기 쉬워야 한다. 짧은 문장들은 이해를 돕는다.⁸ 그리고 (《도덕 감정론》에 근본적인 관념으로) 언어는 공감과 청취자의 수용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의사 전달이 심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미스는 상이한 주장들이 상이한 기법들을 필요로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그는—객관적인 진술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체*(narrative) 담화들로부터, 원인과 결

6 《수사와 순수 문학 강의(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res)》, 강의 3, v. 19-v. 24, pp. 10-11과 《언어의 최초 형성에 관한 고찰(Considerations Concerning the First Formation of Languages)》, 12, p. 209.

7 《수사와 순수 문학 강의》, 강의 5, v. 53, p. 23.

8 상계서, 강의 6.

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설교적(didactic) 주장들에, 감정에 도달해야 하는 다양한 종류의 웅변적(oratorial) 진술들에 이르기까지—몇 개를 검토한다. 그의 실례들은 [그가] 고전적 작가들과 역사가들에 보기 드물게 정통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열쇠는 사람들과 의사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들은 천성적으로 그러한 공감에 아주 능하고, 그것으로 언어는 의사 전달할 최초의 가장 조잡한 시도들로부터 복잡하고 고도로 이로운 사회 제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스미스의 정부와 공공 정책

스미스의 《법학 강의(Lectures on Jurisprudence)》는 다시 오직 자기 학생들의 노트로서만 잔존하고 있다.⁹ 법학(jurisprudence)이라는 말로, 그가 ‘법률과 정부의 일반 원칙들의 이론’¹⁰ 혹은 ‘시민 정부들이 지휘되어야 하는 규칙들’¹¹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다시 한 번, 그 강의들은 사회 심리학의 연습, 인간 상호 작용으로 어떻게 우리가 법률과 정부 제도들의 본체들을 쌓아올리게 되었는지를 추적하려는 시도로서 간주될 수 있다.

시작 절은 정의(justice)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정부, 헌법,

9 글래스고판은 두 이형(異形)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1762-3학년의 보고서이고, 다른 것은 1766년 날짜의 보고서이다.

10 《법학 강의(Lectures on Jurisprudence)》, 1766년 날짜의 보고서, p. 398.

11 상계서, 1762-3학년의 보고서, 1762년 12월 24일 강의.

국내법, 노예제, 재산권, 법원 그리고 형사 사법의 본질과 발전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룬다. 다른 주요 절, *폴리스(police)* (혹은 정책(policy))에 관한 절은 10년 이상 후에 그의 《국부론》을 형성할, 가격 · 화폐 · 거래 그리고 분업에 관한 스미스의 사고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정의, 정부 그리고 법률

다시 한 번, 스미스는 진화적 견해를 취한다. 수렵-채집인의 시대가 유목 목동의 시대로, 그 다음 정착 농업으로 그리고 상업의 시대로 바뀔 때 따라, 상이한 정부 및 사법 제도들이 이러한 경제적 장치들을 떠받치는 데 필요했다. (한 세기 후, 카를 마르크스는 생산 관계가 사회 관계를 형성한다고 동의할 것이다.¹²⁾)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다듬곤 하듯이, 정부는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목동의 시대와 농부의 시대에 이미 중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장치의 명백한 효용은 권위를 존중하는 우리의 타고난 인간 성향에 의해 보장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발생시킨 것은 시장 경제였다. 더 이른 시대에는, 모든 권력은 지방 족장으로부터 나왔다. 교환 경제에서는, 생산자들은 대신 자기들의 고객들인 셀 수 없이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로 더 많은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대의 정부의 씨앗

12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철학의 빈곤(The Poverty of Philosophy)》, 제2장, 두 번째 관찰(Second Observation).

이 뿌려졌다.

노동과 교환

다른 구절들도 역시 스미스가 심지어 1760년대 중반에서도 《국부론》을 창안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 나라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은 ‘분업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여기에도 핀 공장의 예가 있다.¹³ 그리고 수천 명의 개인들의 협조를 수반하며 고용을 사회 전체에 걸쳐 보급시키는 양털 외투의 생산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맥주나 쇠고기를 얻으려고 양조업자나 고깃간 주인에 의뢰할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이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그가 당신에게 일정한 가격에 그것들을 가지도록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이익이 될지 설명한다. 당신은 그의 박애에 말을 걸지 않고, 그의 자애에 말을 건다.’¹⁴라고 우리는 말을 듣는다. 아마도 그 학생은 스미스의 원래의 말들의 시적 요소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슷하게, 우리는 부가 화폐이며 화폐를 보존하기 위해 수입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중상주의 견해를 스미스가 공격하는 것을 발견한다. 방탕한 생활로, 부유한 탕아가 자본을 낭비할 수 있고, 이것은 산출물과 번영을 서서히 해치는데, 설사 어떤 주화도 유통에서 상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 부와 화폐는 명백히 같은 것이 아니다.

13 《법학 강의》, 1762-3학년의 보고서, 1763년 3월 29일의 강의, pp. 341-2.

14 상계서, 1762-3학년의 보고서, 1763년 3월 29일의 강의, p. 348.

《국부론》을 예행 연습할 뿐만 아니라, 강의들은 또한 《도덕 감정론》에 있는 경제적 견해들도 전개한다. 그는 우리의 물질적 진보의 추진력이 우리의 필요(needs)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wants)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인간만의 미묘함 이어서 어떤 대상도 자기의 기호에 맞게 생산되지 않는다,’¹⁵고 말한다. 경제적 진보는 일단 우리가 먹고, 입고, 주거가 제공된다면 서서히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개선 추구는 결코 끝나지 않고, 그것에서 생기는 제조, 산업, 과학 그리고 예술에서의 진보도 마찬가지이다.

무능한 정부

만약 생산, 교환 그리고 자본 축적이 물질적 진보의 길이라면, 무엇이 그것을 막는가? 너무나 자주, 그것은 무능한 정부라고, 스미스는 말한다. 자본 축적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정부가 자기들을 도둑질에서 보호할 수 없고 자기들을 자유롭게 거래하는 채로 놔 둘 수 없다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부지런하고 저축할 동기를 거의 가지지 않는다.

《법학 강의》는 결코 출판할 생각이 아니었고, 정부 무능과 간섭에 대한 스미스의 공격은 그것이 《국부론》에서 억제되는 것보다 덜 억제된다. 그러나 그는 동일한 비판 대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계약법, 토지 소유권 및 구식이 된 장자 상속법의 단

15 상계서, 1766년 낱씨의 보고서, p. 487.

점들; 생산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부 보조금, 독점 및 특권; 그리고 긴 도제 기간, 농노의 신분 및 사람들이 일자리를 바꾸는 것을 막는 기타 규제들을 포함한다.

부담스러운 세금은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 강의들에서, 그는 이미 조세의 효율성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토지에 대한 세금을 재화에 대한 세금보다 더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징수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들로부터와 강력한 지주들로부터 너무 많은 중앙 계획이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사람들은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니라 시장들 그리고 거래할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개입들은 불가피하게 공공복지를 줄인다. 사람들은 자발적인 교환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양쪽 다는 자기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 부의 원천이다. ‘두 사람이 자신들끼리 거래할 때,’ 그는 관찰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양쪽 다에 유리하다.’ 그리고 그는 중상주의자들에게 말한다. ‘어떤 두 국가 사이에서도 사정은 정확하게 똑같다.’¹⁶

자유와 진보

그의 정책들도 똑같이 강건하다.

위의 고려 사항들로부터 영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유로

16 상계서, 1766년 날짜의 보고서, p. 511. 그는 1762-3학년의 보고서, 1763년 4월 13일의 강의, p. 390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한다.

운 항구가 되어야 하고, 해외 무역에 대해 어떤 종류든 어떠한 중단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정부의 비용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면, 모든 조세, 관세, 그리고 국내 소비세가 폐지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상업과 교환의 자유가 모든 국가들에 대해 그리고 모든 물건들에 대해 허용되어야 할 것 같다.¹⁷

그리고 똑같은 논거에서, ‘교환의 자유(liberty of exchange)’는 또한 모든 국가들 *안에서(within)*도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허용되어야 한다.

스미스의 시대의 약간의 학자들은 진보가 불가피하다고 추정했다. 결국, 그들의 세계는 확실히 전진하고 있었다. 스미스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진보는 규칙들의 틀과, 안전과, 자유와, 정의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지런할 동기를 잃는다. 정부는 틀림없이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부 창출 과정에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기득 이익들에게 그것을 왜곡할 권력을 주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건을 더 낫게 하려는 타고난 욕망은 진보의 아주 강력한 동인(動因)이 된다.

17 상계서, 1766년 낱씨의 보고서, p. 514.

결론

스미스의 덜 알려진 저작들은 그저 그것들이 담고 있는 학문의 깊이 때문만으로도 현대 독자에 도전할지 모른다. 하나에서, 스미스는 상이한 역사적 우주론 모형들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깊이 있게 이야기한다. 또 하나에서, 그는 고전학자들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고전학자들로부터 참고문들을 인용하고 있다. 또 하나에서, 그는, 가까운 나라들과 먼 나라들 양쪽 다, 많은 나라들의 법률 제도들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스미스가 많은 학문 분야들을 통달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또한 그를 명백히 인간 본성의 연구자로서 보여주기도 한다. 그는 법률, 정부, 언어 혹은 심지어 과학도 그저 ‘주어진(given)’ 뿐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사실상, 인간 마음의 창작품들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복잡한 체계들이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설계한 것들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해 추측하는 학자를 매혹시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의 개인의 행동들이 협력하여 그러한 기능하는 사회 제도들을 낳는가 하는 것이다.

6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여담

애덤 스미스는 그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개념으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의 자기 이익적인 행동들이 하여간 전반적인 사회적 편익을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힘든 교섭은 자원들을 크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장 체제를 창출한다.

사실상, 《천문학의 역사》에서 ‘주피터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of Jupiter)’을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스미스는 자기의 전 작품에서 그 구절을 단지 두 번만 사용하며, 그것도 정말이지 보편적으로 추정되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부자들은 빈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

《도덕 감정론》에서, 스미스는 ‘신(Providence)’의 손이 경제적 보상을 균등화한다고 암시한다. 부자들은 빈자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없다. 그들의 토지에 의해 생산된 대부분의 식량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사용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부자들이 수요하는 사치품, ‘자잘구레한 장신구들(baubles and trinkets)’을 공급하는 사람들—과 교환하는 것이다. 단지 자신들만 생각하면서, 부자들은 수천의

사람들에게 고용을 제공한다.

부자들은 단지 그 무더기로부터 가장 귀중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할 뿐이다. 그들은 빈자들보다 거의 더 많이 소비하지 않으며, 그들의 타고난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단지 자기들 자신의 편리만 의도할지라도, 비록 자기들이 고용하는 엄청나게 많은 노동으로부터 그들이 제안하는 유일한 목적이 자기들 자신의 허영심과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충족일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개선들의 결과를 빈자들과 나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만약 지구가 자기의 모든 거주자들 사이에 균등한 구획들로 나누어졌더라면 이루어졌을 것과 거의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게 되며, 종의 증식에 대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¹

국내 및 외국 산업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유일한 언급은 외국 무역에 비해 국내 산업들을 촉진하는 공식적 독점들에 관한 구절에서다. 스미스는 이것이 국민들을 부추겨 국내 산업들에 더 많은 자본을 쓰게 한

1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제4부, 제1장, pp. 184-5, 문단 10.

다고 언급하고, 그 다음 그 점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모든 개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자기의 자본을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데 고용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산업을 그것의 산물이 가장 크게 가치 있도록 지휘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모든 개인은 불가피하게 사회의 연간 수입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크게 하려고 노력한다. 참으로, 그는 일반적으로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또한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증진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외국 산업의 지원보다 국내 산업의 지원을 더 선호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안정만을 의도한다. 그리고 그 산업을 그것의 산물이 가장 크게 가치가 있는 방식으로 지휘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득만 의도하는데, 그는 이 경우, 많은 다른 경우들에서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기 의도의 일부가 아니었던 목적을 증진하게 된다.²

이 두 구절은 비판자들에게 애덤 스미스의 진정한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이 그것에 관한 대중적인 관념과 전혀 다르다고 암시한다. 하나에서, 자기 이익의 행복한 결과는 ‘신’에게 돌려진다. 다른 것에서, 그것은 수출 무역에 관한 논의에서 부차적인 논평이다.

2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권 IV, 제2장, p. 456, 문단 9.

인간 행동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

사실상, 비판자들은 너무 좁게 읽는다. 보통 이해되는,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은 스미스의 작품에 스며들어 있고, 설사 이 두 특정 참고문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구는 인간 행동들이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리고 정의의 원칙들과 같은 소수의 근본적인 규칙들을 따르면, 개인들의 자기 이익 도모 행동들이 의도하지 않게 잘 기능하고 이로인한 전반적인 사회 질서를 낳을 수 있다는, 스미스의 견해에 대한 매우 편리한 약칭이기 때문이다.

내가 (스미스의 예를 사용하여) 양털 외투를 살 때,³ 나는 나 자신의 편익을 위해 그렇게 한다. 나는 상점 주인의 복지에 불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베 짜는 사람, 목동, 양털을 깎는 사람, 양털을 빚는 사람, 염색업자, 실 잣는 사람, 도구 제작자, 운반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그 밖의 사람들—나는 그들을 아마도 결코 심지어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더욱 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외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들의 생각들은 아마도 더 자기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구매는 그들을 정말 이롭게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쓰는 약간의 소부분이 자동적으로 그들 각각에게 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들 각각이 외투의 제조에 투입하는 노동은 내가

3 상계서, 권 I, 제1장, p. 22, 문단 11.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있을 것보다 더 낮고 더 값싼 의복을 내게 준다.

상이한 나라들에 있는 수천의 사람들의 노동이, 어떠한 지도하는 당국의 필요 없이, 오직 관련된 모든 사람의 자기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여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을 지 모른다. 그러나 스미스는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 자발적인 교환은 오직 양 당사자 다 거래로부터 편익을 얻을 것을 기대할 때에만 일어난다. 그들 각각은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대가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말하자면, 노동에 대한 대가로 화폐를, 혹은 화폐에 대한 대가로 재화를—얻는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거래할 때, 그러한 편익은 전 공동체에 걸쳐 널리 그리고 빠르게 퍼진다.

한편, 가격들은 사람들이 교환으로 특정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기꺼이 희생하는지 보여준다. 그것들은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 우리의 노동과 자본이 어디에 돌려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신호한다. 그래서—자동적이지만 아주 비의도적으로—우리는 결국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욕망과 필요를 만족시키게 된다.

자기 영속적인 체제

스미스는 이 사회 체제의 진화적 본질을 어렴풋이 약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존한다고, 그는 말한다. 《도덕 감정론》에서, 그가 그것을 신의 혹은 준(準)신의 섭리

로 돌리는 것은 아주 사실이다. 그 당시 대학 생활은 성직자들에 의해 지배되었으므로, 아마도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혹은 아마도, 다윈 1세기 전이어서 그것은 유일한 설명인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는 그 체제를 신에게 돌리는 것과 자연에 돌리는 것 사이에서 망설인다. 그리고 후에, 성직자들에게서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급료를 받을 때, 이것이 자연적인, 자기 영속적인 체제(self-perpetuating system) 라는 견해가 자기의 사고들에서 더 강해진 것 같다.⁴

이것은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스미스는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시기심이 강하며, 허영심이 많고, 성 잘 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나치면, 이러한 타고난 인간 성향들은 파괴적이다. 그렇지만 적당하면, 그것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자기 이익은 우리로 하여금 거래를 하게 하여,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부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시기심은 우리를 고무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이것은 우연히 제조업, 과학, 심지어 예술도 증진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허영심은 우리를 부추겨 자비의 행위를 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의 분개가 우리를 괴롭히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한다.

그러므로 기이한 방식으로, 애덤 스미스의 도덕 체계는 그의 경

4 나는 이 관찰에 대해 개빈 케네디(Gavin Kennedy) 교수에게 감사한다.

제 체제만큼 자기중심적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야망의 부산물로
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의 경멸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한다.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결과들

그러나 이 사회 체제가 순조롭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서는, 우리는 약간의 규칙들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다
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정의의 규칙들, 우리에게 우
리의 낱것의 욕망을 억제하도록 촉구하는 도덕의 규칙들,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는 재산과 계약의 규칙들이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의
규칙들은 협력하여 이로운 사회적 질서를 창출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타
고난 본능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한정된 이성과 이해보다 더 확
실한 안내자다.

더욱 최근에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F. A. 하이에크는 중앙 명
령의 필요 없이도 조화로운 사회 질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의
기원을 스미스와 그 너머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았다.⁵ 진화와 심리

5 F. A. 하이에크(F. A. Hayek), 《철학,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의 연구(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Simon & Schuster, New York, 1967, 제6장, ‘인간 설계가 아니라 인간 행동의 결과,’ pp. 96-105를 보라. 읽을 만한 개관에 대해서는, E. 버틀러(E. Butler), 《하이에크: 우리 시대의 정치 및 경제 사상에 대한 그의 공헌(Hayek: His Contribution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Thought of Our Time)》, Temple Smith, London, 1983, 제1장, ‘사회가 작동하는 방법의 이해’를 보라.

학에 관한 자기의 현대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이에크는 사회 집단들이, 그저 개인의 행동의 일정한 규칙 패턴들을 따르기만 함으로써, 어떻게 번창할 수 있고, 부지불식간에 순조롭게 기능하는 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알아냈다.⁶ 예를 들어, 언어에서는, 우리는 그저 소수의 문법 규칙들—우리가 아주 자연적으로 따르지만, 설명하기 어렵게 여기는 규칙들—을 따르기만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엄청나게 효과적인 의사 전달 체계를 창출한다. 물론, 스미스는 언어에 관한 자기 자신의 비평에서 그것에 가까워진다.⁷

이 이로운 사회 질서의 기초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하는 데 놓여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욕망들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지만, 종종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들과 갈등한다. 점차, 우리는 무슨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용인되고, 파괴적인 폭력에 이르지 않는지 터득한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인간 공감의 도움을 받아, 정의의 규칙들을 알아내는데, 그것들에 의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할 수 있다.⁸ 경제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도, 우리는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법을 터득하는데, 설사 그것이 우리의 의도의 일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

6 하이에크, 《철학의 연구》, 제4장, ‘행위 규칙의 진화에 관한 주석,’ pp. 66-81.

7 《수사와 순수 문학》을 보라.

8 《도덕 감정론》, 제2부, 제2절, 제3장.

7 애덤 스미스의 몇몇 유명한 인용문들

애덤 스미스로부터의 인용문들의 더 넓은 발췌에 대해서는, J. 해거티(J. Haggarty), 《애덤 스미스의 지혜(The Wisdom of Adam Smith)》, Liberty Fund, Indianapolis, IN, 1976을 보라.

분업에 관하여...

잘 통치되는 사회에서, 국민들의 가장 낮은 계급들에도 확대되는 보편적인 풍요를 야기하는 것은, 분업으로 말미암은, 모든 상이한 기술들의 생산물들의 큰 증가이다.

《국부론》, 권I, 제1장, p. 22, 문단 10

... 그리고 비교 우위

온실, 온상, 그리고 온벽(hotwall · 과일의 성장과 원숙을 촉진하기 위한 난방 송기관(送氣管)들이 제공되는 벽)을 써서,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좋은 포도들을 재배할 수 있고, 적어도 똑같이 좋은 것을 외국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의 대략 30배에 그것들로부터 아주 좋은 포도주도 만들 수 있다. 그저 스코틀랜드에서 보르도 산 붉은 포도주(claret)와 부르고뉴 산 포도주(burgundy)를 만드는 것을

장려한답시고, 모든 외국 포도주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법률인가?

《국부론》, 권 IV, 제2장, p. 458, 문단 15

자기가 사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을 결코 집에서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한 가정의 모든 분별 있는 가장의 좌우명이다. . . . 모든 사적 가정의 행위에서 분별인 것은 큰 왕국의 그것에서 거의 어리석음일 리가 없다.

《국부론》, 권 IV, 제2장, p. 456-7, 문단 11-12

경쟁에 관하여. . .

일반적으로, 만약 어떤 거래 부문이든, 혹은 분업이든, 대중에 이로우려면, 경쟁이 더 자유롭고 더 일반적일수록, 그것이 항상 더 이로울 것이다.

《국부론》, 권 II, 제2장, p. 329, 문단 106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끝이자 목적이다. 그리고 생산자의 이익은, 오직 그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할지 모르는 한에서만, 돌보아야 한다.

《국부론》, 권 IV, 제8장, p. 660, 문단 49

. . . 그리고 거래의 왜곡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흥겹게 떠들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별로 같이 만나지 않지만, 그 대화는 대중에 대한 음모나 가격을 올리려는 어떤 간계로 끝난다. . . . 그러나 비록 법률은 같은 직업의 사람들이 때때로 같이 모이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그러한 회합들을 쉽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물며 그것들을 필요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국부론》, 권 IV, 제8장, 제2부, p. 145, 문단 c27

특정 업에 있는 같은 직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 등록부에 자기들의 이름과 거주지를 기재하도록 강요하는 규제는 그러한 회합들을 쉽게 한다. . . .

같은 직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빈자들, 자기들의 병자들, 자기들의 과부들과 고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과세하는 규제는 . . . 그러한 회합들을 필요하게 한다.

회사는 그것들을 필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반수의 행위가 전체에 구속력이 있게 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거래에서는, 효과적인 조합은 모든 단일의 거래자의 만장일치 동의에 의하지 않고는 설립될 수 없고, 그것은 모든 단일의 거래자가 계속해서 같은 의견인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법인의 과반수는 하여간 어떤 자발적인 조합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지속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정관을, 적절한

처벌과 함께, 제정할 수 있다.

《국부론》, 권 IV, 제8장, p. 145, 문단 c29-30

시장을 넓히고 경쟁을 줄이는 것은 항상 거래자들의 이익이다. . . . 이러한 주문으로부터 생기는 어떠한 새로운 상업 법률이나 규정의 제안도 항상 아주 조심해서 경청해야 하고, 가장 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의심하기도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오래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한 연후가 아니면 결코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이익이 대중의 이익과 결코 꼭 같지 않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대중을 속이고 심지어 억압하는 데도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따라서 많은 경우 대중을 속이기도 했고 억압하기도 했던 사람들의 주문으로부터 생긴다.

《국부론》, 권 I, 제11장, p. 267, 문단 10

정부에 관하여...

왕들과 대신들이 사인들의 경제를 돌보아주는 척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비용을 억제하는 척하는 것은, . . . 최고로 뻔뻔하고 건방지다. . . . 그들 자신은 항상, 그리고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회에서 가장 씹씹이가 헤픈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자기들 자신의 비용이나 잘 돌보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사인들에게 제 것들을 맡겨도 무방하다. 만약 그들 자신의 낭비가 국가를 망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민들의

낭비는 결코 국가를 망치지 않을 것이다.

《국부론》, 권 II, 제3장, p. 346, 문단 36

사인들을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의 자본들을 고용해야 하는지 지휘하려고 하는 정치가는 아주 불필요한 관심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여간 어떤 지방 의회나 의회에도 안전하게 위탁될 수 없을 권한 그리고 어디에서도 자신을 그것을 행사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어리석음과 주제넘음을 가진 사람의 수중에 있는 만큼 위험하지 않을 권한을 쥐기도 할 것이다.

《국부론》, 권 IV, 제2장, p. 456, 문단 10

... *과세*...

한 정부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는 것보다 더 빨리 다른 정부에 관해 들어서 아는 기술은 없다.

《국부론》, 권 V, 제2장, 제2부, 제1조목과 제2조목에 대한 부록, p. 861, 문단 12

모든 국가의 신민들은 자기들의 각자의 능력의 비례하여, 가능한 한 그것에 가깝게, 정부의 지원에 기여해야 한다.

《국부론》, 권 V, 제2장, 제2부, v. ii, p. 825, 문단 3

각 개인이 납부하게 되어 있는 조세는 확실하고,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납세 시점, 납세 방식, 납세액은 모두 기부

자와 모든 다른 사람에게 명백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 . .

《국부론》, 권 V, 제2장, 제2부, p. 825, 문단 4

모든 조세는 기부자가 납부하기에 가장 편리할 것 같은 시
점에, 혹은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국부론》, 권 V, 제2장, 제2부, p. 826, 문단 5

모든 조세는, 그것이 국가의 공공 금고 속에 가져오는 것
을 넘어 그리고 이상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가능한
한 적게 빼앗을 뿐만 아니라 간직하기도 하도록 고안되어
야 한다. . . .

《국부론》, 권 V, 제2장, 제2부, p. 826, 문단 6

스톡의 소유자는 당연히 세계의 시민이지, 반드시 어떤 특
정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부담스러운 세금
에 사정(査定)되기 위해 성가신 심문에 노출되는 국가를
버리고 떠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거나 자기의 재산을 더욱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을 어떤 다른 국가로 자기의 스톡을 옮길 것이다.

《국부론》, 권 V, 제2장, 제2부, 제2조목, pp. 848-9, 문단 f8

. . . 그리고 보조금

날 혹은 훈제되지 않은 청어 어업에 대한 장려금은 용적
톤수 장려금이고, 배의 적재량에 비례하지, 어업에서의 배

의 근면이나 성공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스럽게
도 배들이, 물고기가 아니라, 장려금을 잡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장비를 갖추는 것이 너무 흔해졌다.

《국부론》, 권 IV, 제5장, p. 520, 문단 32

수입 통제에 관하여

부자가 빈자보다 자기 이웃의 근면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고객이 될 것 같듯이, 마찬가지로 부유한 국가도 그렇다.
[무역 제한은,] 우리의 모든 이웃 나라들의 궁핍화를 목표
로 삼음으로써, 바로 그 상업을 사소하고 경멸할 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국부론》, 권 IV, 제3장, 제2부, p. 495, 문단 c11

그러한 보복[다른 고(高)관세 국가들에 대해 부과되는 관
세]이 그러한 효과를 낼 것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은, 아마도, 그 심의가 항상 똑같은 일반 원칙들에 의해 지
배되어야 하는 입법자의 과학에 속하기보다는, 그 회의가
시시각각의 상황 변동에 의해 지휘되는, 통속적으로 경제
거나 정치가로 불리는, 음험하고 교활한 동물의 기술에 속
한다.

《국부론》, 권 IV, 제2장, p. 468, 문단 39

유인에 관하여...

공공 서비스들은 그것들의 보상이 그것들이 수행되는 결

과로서 생길 때보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
는 근면에 비례할 때보다, 결코 더 잘 수행되지 않는다.

《국부론》, 권 V, 제1장, 제2부, p. 719, 문단 b20

... 그리고 잘못된 유인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편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익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어떤 매우 고된 의무를 수행하
건 않건 그의 봉급이 정확하게 똑같게 되어 있다면, 그것
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 그것을 부주의하고 소홀한 방
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 확실히 그에게 이익이다.

《국부론》, 권 V, 제1장, 제3부, 제2조목, p. 760, 문단 f7

정의에 관하여...

만약 [정의가] 제거된다면, 크고, 엄청난 인간 사회 조직은
... 순식간에 무너져서 원자들로 뒹에 틀림없다.

《도덕 감정론》, 제2부, 제2절, 제3장, p. 86, 문단 4

국가를 가장 낮은 미개에서 최고도의 풍요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는, 평화, 부담이 되지 않는 세금, 그리고 견딜 만한
사법 행정 외에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 나머지 모든 것은
자연적인 일의 진행에 의해 발생된다.

더걸드 스튜어트(Dugald Stewart), 《법학 박사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저작의 기술(Account of the life and writings of Adam
Smith LLD)》, 제4절, 25에서 인용된, 1755년의 강의

... 그리고 인간 공감

사람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생각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의 본성에는 명백히 몇몇 원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행운에 관심을 갖게 하고, 비록 그가 그들의 행복을 보는 즐거움을 제외하고는 그것에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복을 그에게 필요하게 한다.

《도덕 감정론》, 제1부, 제1절, 제1장, p. 9, 문단 1

개선할 충동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조건을 더 낮게 하려는 모든 개인의 타고난 노력은... 아주 강력하여 그것은 홀로, 그리고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사회를 경영하여 부와 번영에 이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법률들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자주 사회의 운영들을 방해하는, 많은 적절하지 않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도 있다.

《국부론》, 권 IV, 제5장, 곡물 무역에 관한 여담, p. 540, 문단 b43

... 보이지 않는 손...

[부자들은] 빈자들보다 거의 더 많이 소비하지 않으며, 그들의 타고난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개선들의 결과를 빈자들과 나눈다. 그들은 보이

지 않는 손에 이끌려, 만약 지구가 자기의 모든 거주자들 사이에 균등한 구획들로 나누어졌더라면 이루어졌을 것과 거의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을 의도하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게 되며, 종의 증식에 대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도덕 감정론》, 제4부, 제1장, pp. 184-5, 문단 10

각 개인은 . . .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고, 또한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증진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 . .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안정만을 의도한다. 그리고 그 산업을 그것의 산물이 가장 크게 가치가 있는 방식으로 지휘함으로써,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득만 의도하는데, 그는 이 경우, 많은 다른 경우들에서와 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기 의도의 일부가 아니었던 목적을 증진하게 된다.

《국부론》, 권 IV, 제2장, p. 456, 문단 9

우리가 우리의 정찬을 기대하는 것은 고깃간 주인, 양조업자, 빵 굽는 사람의 자비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 자신의 이익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으로부터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가 아니라 그들의 자애(自愛)에 말을 걸고, 결코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득에 관해 이야기한다.

《국부론》, 권 I, 제2장, pp. 26-7, 문단 12

... 그리고 계획

체계의 사람은 ... 자기 자신의 자만에 매우 정통한 경향이 있고, 종종 자기 자신의 이상적인 통치 계획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아주 반해서, 그는 그것의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가장 작은 이탈도 참을 수 없다. ... 그는 손이 장기관 위에 상이한 말들을 배열하는 것만큼 아주 쉽게 자기가 거대한 사회의 상이한 구성원들을 배열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 그는 인간 사회의 거대한 장기관에서 모든 단일의 말이, 입법부가 그것에 일으키기 위해 선택할지 모르는 것과 전혀 다른, 자기 자신의 운동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감정론》, 제6부, 제2절 제2장, pp. 233-4, 문단 17

대학에 관하여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공립(public) 교수들의 대부분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 가르치는 척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포기했다.

《국부론》, 권 V, 제1장, 제3부, 제2조, p. 761, 문단 8

대학들과 대학교들의 교과는 대체로,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들의 이익을 위해, 혹은 더욱 정확히 말하면, 편함을 위해 고안되었다.

《국부론》, 권 V, 제1장, 제3부, 제2조, p. 764, 문단 15

부의 분배에 관하여...

태반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결코 전체에 대한 불편으로
간주될 수 없다. 구성원들의 훨씬 태반이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설마 번영하고 행복할 리가 없다.

《국부론》, 권 I, 제8장, p. 96, 문단 36

그러나 어떤 불평도 화폐의 부족의 불평보다 더 흔하지 않다.

《국부론》, 권 IV, 제1장, p. 437, 문단 16

... 그리고 자유의 편익

[거래 제한이 없으면]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의 명백
하고 단순한 체계가 저절로 수립된다. 모든 사람은... 완
전히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게 놔두어진다. ... 주권자는 어떤 인간 지혜
나 지식도 결코 충분할 리 없을 의무, 사인들의 산업을 감
독하고 그것을 사회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고용들로 돌릴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국부론》, 권 IV, 제9장, p. 687, 문단 51

8 가려낸 참고 문헌

애덤 스미스의 저작과 편지의 글래스고판

Bryce, J. C. (ed.) (1985),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 Letters*,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Campbell, R. H. and A. S. Skinner (eds.) (1982),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Haakonssen, K. and A. S. Skinner (2003), *Index to the Works of Adam Smith*,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Meek, R. I., D. D. Raphael, and P. G. Stein (eds.) (1982), *Lectures on Jurisprudence*,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Mossner, E. C. and I. S. Ross (eds.) (1987),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revised edn.,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Raphael, D. D. and A. L. Macfie (eds.) (1984),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Wightman, W. P. D. and J. C. Bryce (eds.) (1982),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이 책은 더글드 스튜어트(Dugald Stewart)의 ‘법학 박사 애덤 스미

스의 생애와 저작의 기술(Account of the life and writings of Adam Smith LLD)’을 포함하고 있다).

스미스의 저작에 관한 기타 판들

Haggarty, J. (1976), *The Wisdom of Adam Smith*,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스미스의 저작으로부터 주요 인용문들을 모은 것).

Heilbroner, R. L., with L. J. Malone (1986), *The Essential Adam Smi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소개 주들을 가진, 스미스의 주요 저술의 축약판).

스미스와 그의 저작에 관한 책들

Buchan, J. (2006), *Adam Smith and the Pursuit of Perfect Liberty*, London: Profile Books (스미스의 사상은 현대 정치 범주들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ampbell, R. H. and A. S. Skinner (1982), *Adam Smith*, London: Croome Helm (스미스의 주요 저작의 명백한 요약물 가지고 있는 전기).

Fry, M. (ed.) (1992), *Adam Smith's Legacy*, London: Routledge (폴 새뮤얼슨, 프랭코 모딜리아니, 제임스 뷰캐넌, 그리고 기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보는, 현대 경제학에서 스미스의 위치).

Kennedy, G. (2005), *Adam Smith's Lost Legacy*, London: Palgrave

Macmillan (스미스의 도덕 철학에 집중하여, 케네디는 스미스가 오늘날 종종 잘못 해석된다고 주장한다).

McLean, I. (2006), *Adam Smith: Radical and Egalitaria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제목이 그것 모두를 말한다).

O'Rourke, P. J. (2006), *On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스미스의 주요 아이디어들에 관한 재치 있지만 통찰력 있는 요약).

Rae, J. (1895), *Life of Adam Smith*, London: Macmillan (또한 제이 컵 바이너(Jacob Viner)에 의한 소개와 함께 1965년에 리프린트되기도 한, 매력적인 전기).

Ross, I. S. (1995), *The Life of Adam Smi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지도적인 스미스 학자에 의한 전면적인 전기).

West, E. G. (1976), *Adam Smith: The Man and His Works*,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스미스의 생애와 공헌에 관한 탁월한 개관).

스미스와 그의 저작에 관한 논문들

Rosten, L. (1970), 'A modern man named Smith,' in *People I Have Loved, Known, or Admired*, New York: McGraw-Hill.

Sprague, E. (1967), 'Adam Smith,' in P. Edwards (ed.), *The*

Encyclopaedia of Philosophy, London and New York: Collier
Macmillan (스미스의 도덕 철학에 집중하는, 쉽고 간결한 해
설).

DVD

Adam Smith and the Wealth of Nations, Indianapolis, IN: Liberty
Fund.

논평: 오늘날 애덤 스미스의 적절성

크레이그 스미스¹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의 스코틀랜드 고국에서는, 애덤 스미스는 유명한 인물이다. 그를 기념하여 에든버러에 동상이 세워지고 있고, 은행권은 그의 초상을 지니고 있으며, 한 대학과 한 극장이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고 있다. 나는 심지어 이 글을 글래스고 대학교 애덤 스미스 빌딩에 있는 나의 연구실에서 쓰기조차 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스미스가 알려져 있고 찬양되고 있지만, 그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을 알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영국, 그리고 참으로 유럽에서 나타난 가장 심오한 사상가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 애덤 스미스 입문이 어느 정도 이 광범위한 대중 무지를 교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나의 애덤 스미스와의 첫 접촉은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국부론》의 예들을 사용한 견식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통해 왔다. 어느 수요일 제4교시는 핀 제조업자, 근로자의 양털 외투 그리고 고깃간 주인 · 양조업자 및 빵집 주인으로 채워진 지적인 즐거움

¹ 이 글을 쓸 때 크레이그 스미스(Craig Smith)는 글래스고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영국 학술원 박사 후 연구위원이었다. 출간될 때까지는 그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도덕 철학과에서 전임강사(lecturer)가 될 것이다.

이었다. 나는 그 위대한 사람의 작품의 그러한 초기 경험을 가지게 되어 행운이었고, 나의 학부 학업의 일환으로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시대에 관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더 행운이었다.

불행하게도, 내가 누렸던 스미스의 사상의 초기 경험은 너무나 드물다. 오늘날 충분한 학생들과 비전문가들이 스미스의 작품을 읽지 않았다. 스미스는 우리의 중고등학교들과 대학교들에서 가르쳐야 하는 만큼 흔히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큰 수치다. 많은 학부 경제학 전공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학문 분야의 창시자에 대해 단지 피상적인 소개만 주어진다는 것은 특히 불행하다. 많은 경제학 수업들은 스미스(와 보통 핀 제조 예)를 분업에 관한 입문 강의들에서 단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그가 식별한 바로 그 원리들을 무미건조한 추상적인 용어들로 논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유감인데, 왜냐하면 스미스는 25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해하기 쉬운 명백한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저작들은 영감을 주고 계몽할 수 있는 관찰들의 풍부하고 복합적인 본체이다. 스미스의 작품은 복잡한 사회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대표한다. 이 사회 과학은 속으로는 개인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의 결정적인 현실을 알고 있다. 이것들 둘 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계의 현실이다.

세계화의 세계에서 국제 및 국내 거래에 관한 스미스의 연구는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형성하는 힘들의 핵심을 바로 찌른다. 그는 다른 시대에서 쓰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중상주의의 오류들에 대한 그의 진단과 자의적인 정치적 간섭에 대한 그의 일반적인 불신은

무역의 효과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상업이 쉽게 악마 취급을 당하는 세계에서 오늘날 특별히 적절하다.

스미스는 지식인들 가운데서 상당한 몫의 반대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심의 제창자로 멀리하는 스미스는 그의 작품을 실제로 읽고 이해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인식될 스미스가 아니다. 《도덕 감정론》은 공감을 올바르게 인간 경험의 중심에 두는 도덕 심리학의 철저하게 인도적인 작품이다. 스미스는 일상의 인간 경험을 연구하고 설명하면서 성년을 보냈다. 그는 달성할 수 없는 완전한 덕(perfect virtue)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보통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회적 상호 작용을 경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도덕적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자기 시간을 썼다.

약간의 피상적인 비판자들이 암시하듯이, 《국부론》에서의 거래의 연구와 《도덕 감정론》에서의 동정의 분석 사이에 모순이 있지도 않다. 둘 다 인간 경험의 측면들이고, 스미스는 둘 다가 인간 사회 생활에 대해 가지는 함의들을 검토하는 데 동일한 개념적 엄밀을 사용한다.

스미스의 연구는 인간 사회 생활의 경험적 현실을 이해하려는 욕망에 입각해 있다. 예를 들면, 과도한 정치적 간섭에 대한 그의 반대 논거들은 상업적 교환의 현실에 대한 사실적 분석에 근거해 있다. 개인들 사이의 교환의 생산적인 편익들에 관한 그의 예들이—그가 종종 경멸하는—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도 또한 너무나 자주 간과되고 있다. 스미스는 거래가 모

든 사람에게 이롭고 특히 사회의 바로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믿었다.

애덤 스미스의 연구는 자유 사회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원리들과 제도들의 명백한 분석을 제공한다. 법의 지배와 정의는 모든 인류에게 이로운 ‘단순하고 명백한(simple and obvious)’ 자연적 자유 체계의 틀을 제공한다. 반면에 공유된 도덕적 관행의 진화는 인간 공동생활을 지원하고 유지한다.

스미스의 주요 유산을 현대 세계에 나타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개념, 혹은 더욱 일반적으로,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통한 사회적 진화의 관념이다. 가장 중요한 인간 업적들의 다수가, 스미스의 친구 애덤 퍼거슨이 관찰했듯이, 인간 행동의 결과이지 인간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는 인식은 우리 모두에게 심오한 교훈이다. 고상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를 조직할 ‘체계의 사람들(men of system)’에 대해 스미스가 깊이 회의하도록 이끈 것은 이러한 관찰이다.

스미스는 실제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사상은 정치적 몽상가의 오만에 쉽게 힘을 빌려 주지 않는다. 이것은 스미스가 급진적인 사상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시대 동안 그의 견해들은 혁명적이었다. 우리의 시대에는 그의 견해들은 인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가장 잘 성격 규정되는 정치관을 향하고 있다. 그것들은 여전히 급진적인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정치적 계급의 확립된 가정들의 다수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만약 더 많은 우리의 정치인들이 스미스

의 작품을 읽고 이해했더라면,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정말 그렇듯이 상식적이고 사실에 기반을 둔 권고로서 인식될 것이다.

학계에서, 애덤 스미스 학문이 건실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리 없다. 2000년과 2004년 사이 전 세계에서 열네 명 이상의 대학원생들이 애덤 스미스에 관한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들은 대학 학문 분야들 전체에 걸쳐 운영되는 국제적인 애덤 스미스 학자 공동체에 가입해 있다. 국제 애덤 스미스 학회(International Adam Smith Society)에 의한 연간(年刊) 《애덤 스미스 평론(Adam Smith Review)》의 발간은 스미스의 작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활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이다.

애덤 스미스 학자들과는 별도로 또한 스미스에 의해 영감을 받은 학자들의 건실한 공동체도 있다. 그의 관찰들에 의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자기들 자신의 연구를 통해 확대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스미스의 ‘놀랍도록 현대적인(remarkably modern)’ 과학 이론에 대한 관심이 자라고 있고, 그의 도덕의 사회 심리학(social psychology of morality)은 진화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하위 학문 분야에서 유망한 연구이다. 그의 언어 이론들과 미학은 여전히 덜 탐구되고 있고 학자들에게 더욱 기름진 땅을 제공한다. 버틀러 박사의 입문서가 숨쉴 있게 나타내듯이, 스미스는 넓은 지적 유산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또한 미완의 유산도 남겼다. 스미스의 사상의 함의들을 탐구하는 것은 한 평생 지속할 수 있을 풍부하고 자극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에게 놀랄 정도로 풍부한 저술 유산을 남겨 주었다. 그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다. 그는 또한 그 세계를 이해할 지적인 도구 모음(toolkit)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저작들은 더욱 널리 읽히고 더욱 명백히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의 통찰들이 자기 자신의 시대를 계몽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의 아이디어들의 영감의 힘은 우리 자신의 세계를 계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IEA에 대해

이 연구소는, 유한 합자, 연구 및 교육 자선 단체(No. CC 235 351)이다. 그것의 사명은 시장들이 경제 및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자유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IEA는 자신의 사명을 다음을 통해 달성한다.

- 고품질의 출판 프로그램
- 콘퍼런스, 세미나, 강의 그리고 기타 이벤트들
- 중고등 및 대학생들에 대한 봉사 활동
- 매체 도입과 출연의 중개

1955년 고(故) 앤터니 피셔 경에 의해 설립된 IEA는 교육 자선 단체이지, 정치적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정당이나 단체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어떤 선거나 주민 투표에서도 혹은 어떤 다른 때에도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활동들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것의 재원은 출판물의 판매, 콘퍼런스 참가비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로 조달된다.

자신의 메인 시리즈의 출판물들 외에도 IEA는 또한 계간지 《경제 문제(Economic Affairs)》도 출판한다.

IEA는, 자신의 업무에서, 유명한 국제적 대학 자문 위원회와 명예 연구 위원들의 저명한 패널의 도움을 받는다. 다른 학자들과 함께, 그들은 출판될 만한 IEA 출판물들을 논평하며, 그들의 논평들은 저자들에게 익명으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모든 IEA 페이지들은 지도적인 학술 잡지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엄격한 독립적 심사 과정을 밟는다.

IEA 출판물들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널리 수업에서 사용되고 교재로 채택된다. 그것들은 또한 전 세계에 걸쳐 팔리기도 하고 종종 번역/재간된다.

1974년 이래로 IEA는 70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100개의 비슷한 기관들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창설하는 것을 도왔다. 그것들은 모두 독립적이지만 IEA의 사명을 공유한다.

IEA의 출판물들에서 표현된 견해들은 필자들의 견해들이지, (법인 견해를 가지지 않는) 이 연구소의 견해들이 아니며, 그 관리 이사들이나 대학 자문 위원들이나 중견 직원들의 견해들도 아니다.

...

이 연구소는 자신의 출판 프로그램과 기타 업무를 위해 고(故) 로널드 코스 교수의 관대한 회사(喜捨)로부터 온 재정적 지원에 감사드린다.

옮긴이 후기

이 역서는 Eamonn Butler, *Adam Smith: A Primer*, London: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2007을 번역한 것이다. 저명한 자유주의 싱크 탱크인 애덤 스미스 연구소의 소장 버틀러 박사는 이 입문서에서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양대 저작의 핵심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는 다른 저작들과 강의들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애덤 스미스가 천문학의 역사를 썼고, 수사와 순수 문학 강의를 했으며, 언어의 역사에 관해 쓰기도 했다는 것, 따라서 애덤 스미스가 다양한 분야에 정통한 박학다식한 학자였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애덤 스미스 하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구절로 화답할 정도로 많은 독자들에게는 이 구절이 낯익을 것이다. 그렇지만 버틀러 박사는 우리에게 그 구절이 단지 《천문학의 역사》에 한 번, 《국부론》에 한 번, 《도덕 감정론》에 한 번, 도합 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구절이 나타나는 상황이 특수하여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그렇다면 애덤 스미스의 사상은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과 관련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사실상 그 관념은 애덤 스미스의 전 저작에 걸쳐 스며들어 있다고, 버틀러 박사는 강조한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동이 의도되지 않은, 기능하는 사회적 질서를 낳는다는 이 개념은 그 구절을 사용하건 않건 애덤 스미스의 두 대작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는 다른 글들이나 강의 노트들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의 사상은 한 마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사상이라 불러 무방할 것이다.

개인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결과들을 낳는다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은 경제적 진보를 인간 본성과 제도적 진화에 관련짓는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경제 제도도, 도덕도, 언어도 인간의 타고난 본성의 산물로서 유기적으로 자란다. 그래서 버틀러 박사는 이 책에서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자나 도덕 철학자로서보다는 사회 심리학자로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애덤 스미스가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간주하는 방위와 사법과 공공사업과 교육도 상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만큼 상업을 강조한 것인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번영이 상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교환이 있고 강제가 없는 개방적 경쟁 시장이 있을 때, 번영은 아주 빠르게 증가한다. 이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는 방위, 사법 그리고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선조에서 사농공상이라 하여 상인을 천시하고 상업을 경시하였다. 그 결과 이웃나라보다 못 살고 약하게 되었

으며, 급기야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당했다. 오늘날에도 다시 정부와 이익 집단에 의해 사업가가 괴롭힘을 당하고 상업 활동이 억제되고 있다. 그 결과는 실업과 경제 침체와 빈곤으로 나타날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현대 문명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또한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시각을 제시한 사람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가르쳐 준 대로 경제를 운영한 국가는 잘 살게 되었고 가르침에 역행하거나 무시한 국가는 가난하거나 발전이 느렸다. 그는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하면 그 사회는 유덕한 사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도덕 감정론》에서 가르치고 있다. 오늘날 ‘체계의 사람들(men of system)’이 거대한 인간 사회를 장기판의 말을 다루듯 하며 사회 공학에 몰두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는 그들의 착각과 오만을 질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옮긴이는 변함없이 흔쾌히 번역 출판권을 주신 경제문제연구소(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와 동 연구소의 학술·연구 부(副)이사 리처드 웰링스(Richard Wellings) 박사께 감사한다. 옮긴이는 또한 이 책의 편집을 항상 성실하고 능숙하게 수행해 준 김지혜 선생에게도 감사한다. 아울러 원고를 미리 읽어 오탈자를 찾아내 준 미제시언 김도현 군에도 감사한다.

옮긴이에 대해

황수연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정년퇴직하였으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과,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과(1991년, 1997년),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연구소(2004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2013년)에서 교환 교수로 연구하였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그리고 공공선택론 분야의 책을 다수 번역하였다. 이 역서들에는 에이먼 버틀러가 쓴 《공공선택론 입문》, 《루트비히 폰 미제스 입문》,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 입문》, 《자유 사회의 기초》, 《고전적 자유주의 입문》, 《축약된 국부론》과 버틀러가 한 장(章)을 쓴 《초보자를 위한 자유의 길잡이》가 포함되어 있다.